

2022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서울시 학부모의 대입제도 만족도와
요구조사



서울혁신포럼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 귀하

이종배, 이승복

이 보고서를
「서울시 학부모의 대입제도 만족도와 요구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29.

- 연구기관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안선희 (중부대학교, 교수)
- 보조연구원 : 윤소정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 자문위원 : 김민경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부모)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정동섭 (NGO역사포럼, 감사)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요약문)

서울시 학부모의 대입제도 만족도와 요구조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선희

요 약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의 요구를 확인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정책당국에 전달함으로써, 대입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서울시 학부모들의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시 소재 전체 고등학교(320개교)에 공문을 보내어 각 학교별로 각 학년 재학생 학부모를 1명씩 무작위 표집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다만, 학년 말이 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와 학부모 참여가 미흡하여 전체 158명이 참여하였다.

3. 연구 결과 요약: 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조사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현행 대입제도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정의 정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컸다. 반면,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현행 대입제도가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너무 지나치게 줄인 점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학부모들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요구 조사

전형유형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축소하자는 요구가 많은 전형은 72.2%로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이었다. 논술위주전형도 축소 요구가 조금 더 많았다. 이러한 수시 전형유형들의 축소 요구는 아마도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불공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능위주전형에 대해서는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4.1%

가 확대를 요구하였다.

다. 각 전형유형별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조사

1)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요구조사

첫째, '국제 바칼로레아(IB) 점수와 평가결과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9%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둘째, '학생부의 내신교과성적 산정 방법은 현행 일부 상대평가등급제, 일부 절대평가등급제 병행 방식에서,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셋째, '고3 7월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의 해당 교과점수를 대체하도록 허용하여 수시 학생부전형에서도 변경된 점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3.2%에 이르렀다. 넷째,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을 대학의 모집요강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개된 전형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80.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2)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요구조사

첫째, 수능을 3학년 1학기 말(7월)과 2학기 말(11월)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응시하는 것에 대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경우 난이도 문제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에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가수준공통시험인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여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기때, 법제화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수능 시험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능시험의 변별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수능 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제한해야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도 확인된다. 여섯째,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을 지금보다 일부 확대하고 대학 모집계열별로 반영과목을 차별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대한 소극적인 긍정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학생들에게 더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하여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정책 제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 대입제도', '공평 대입제도', '단순 대입제도', '적격자 선발을 위한 타당한 대입제도' 실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가. 대입제도 개편의 의제 설정	1
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가. 연구의 필요성	5
나. 연구의 목적	5
다. 연구 문제	5
II. 대입제도 현황과 쟁점	6
1. 대입제도의 변화와 현황	6
가. 노무현정부 이후의 대입제도의 변화	6
나. 문재인정부 시기 대입제도 정책 변화	8
다. 2022년 현재 대입제도 현황	10
2. 대입제도의 쟁점	19
가.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 관련 쟁점	19
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	20
III. 연구방법	22
1. 조사 대상과 방법	22
2. 조사 도구	22
3. 자료 수집 및 분석	23
IV. 조사 결과	25
1.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 조사 결과	25
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25
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30
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	35
라.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인식	40
마. 대입제도 전형 유형의 비율에 대한 의견	45
바. 대입제도 전형유형의 개념 규정 방법에 대한 의견	51

2. 대입제도 개편 요구 조사 결과	53
가. 전반적인 대입제도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53
나. 학생부위주전형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57
다. 수능위주전형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62
라. 논술위주전형 등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69
V. 조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72
1. 조사결과의 시사점	72
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인식 조사결과의 시사점 ..	72
나. 현행 대입제도의 전형유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73
다. 학부모들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요구 조사 결과의 시사점 ..	75
2. 정책 제언	79
가. 대입정책 개선 과정에 대한 제언	79
나. 대입정책 개선 내용에 대한 제언	79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81

표 목 차

〈표1〉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약	2
〈표2〉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업무 추진 계획	3
〈표3〉 대입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	4
〈표4〉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대입제도 변화	7
〈표5〉 문재인정부 시기의 대입제도 변화	9
〈표6〉 대입 전형 유형과 주요 전형요소	10
〈표7〉 수시전형과 정시전型的 차이점 비교	11
〈표8〉 2018~2021학년도 대입전형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변화 ..	12
〈표9〉 2020학년도 서울소재 15개 대학 모집 현황	13
〈표10〉 2020학년도 전국 vs 서울 소재 15개 대학 모집 인원 비율 현황 ..	14
〈표11〉 최근 대입전형 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	15
〈표12〉 2022학년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모집 현황	16
〈표13〉 2023학년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모집 현황	17
〈표14〉 2024학년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모집 현황	18
〈표15〉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	19
〈표16〉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	20

〈표17〉 조사 항목	23
〈표18〉 조사개요	24
〈표 19〉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	25
〈표 20〉 공교육 정상화	26
〈표 21〉 사교육비 유발 효과	26
〈표 22〉 학생 선발의 공정성	27
〈표 23〉 학생 선발의 형평성	28
〈표 24〉 학생 선발의 투명성	28
〈표 25〉 현행대입제도의 복잡성	29
〈표 26〉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	30
〈표 27〉 사교육비 경감 효과	30
〈표 28〉 고교교육 정상화 효과	31
〈표 29〉 공정한 전형	32
〈표 30〉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	32
〈표 31〉 합격·불합격 기준 및 이유 확인 어려움	33
〈표 32〉 계층별 대학 전형 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	34
〈표 33〉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다른 결과	34
〈표 34〉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 조장	35
〈표 35〉 사교육비 경감 효과	36
〈표 36〉 고교교육 정상화 효과	36
〈표 37〉 공정한 전형	37
〈표 38〉 내신 사교육비 증가	38
〈표 39〉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	38
〈표 40〉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 조장	39
〈표 41〉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재도전 어려움	40
〈표 42〉 사교육비 경감 효과	40
〈표 43〉 고교교육 정상화 및 책무성 신장	41
〈표 44〉 공정한 전형	42
〈표 45〉 고교교육 왜곡	42
〈표 46〉 국어, 수학, 영어의 영향력이 큰 전형	43
〈표 47〉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	44
〈표 48〉 합격·불합격 기준 및 이유 확인 어려움	44

〈표 49〉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다른 결과	45
〈표 50〉 수시 및 정시 전형 비율	46
〈표 51〉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46
〈표 52〉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47
〈표 53〉 논술위주전형 비율	48
〈표 54〉 실기/실적위주전형 비율	48
〈표 55〉 수능위주전형 비율	49
〈표 56〉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50
〈표 57〉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50
〈표 58〉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 규정	51
〈표 59〉 수능위주전형의 개념 규정	52
〈표 60〉 논술위주전형의 개념 규정	52
〈표 61〉 공통필수과목 중심의 구성	53
〈표 62〉 전공진로에 따라 다른 반영과목으로 선발	54
〈표 63〉 입학사정관이 주관적 정성평가로 선발	54
〈표 64〉 7월 수시용 수능 시행	55
〈표 65〉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허용	56
〈표 66〉 각 전형유형의 결과 공개 법제화	57
〈표 67〉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58
〈표 68〉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또는 축소	58
〈표 69〉 국제 바칼로레아 점수 및 평가 결과 반영	59
〈표 70〉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60
〈표 71〉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 적용	60
〈표 72〉 7월 수능 점수로 내신 점수 대체 및 수시전형에서 사용 허용 ..	61
〈표 73〉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 공개 및 평가 법제화	62
〈표 74〉 7월 수시용 수능 및 11월 정시용 수능 응시	63
〈표 75〉 정시 수능전형 비율 확대	64
〈표 76〉 수능 전형으로 50% 선발 법제화	64
〈표 77〉 수능시험에 논술형 문항 도입 및 확대	65
〈표 78〉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 ..	66
〈표 79〉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학생부전형 위주로 선발 ..	67
〈표 80〉 수능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제한	67

〈표 81〉 수능시험의 선택과목 확대 및 모집계열별 반영 과목 차별화 ..	68
〈표 82〉 정시 지원기회를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	69
〈표 83〉 대학별 논술위주전형 확대	69
〈표 84〉 공동논술 도입	70
〈표 85〉 대학별 본고사 도입 허용	71
〈참고문헌〉	83
〈설문지〉	8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가. 대입제도 개편의 의제 설정

1) 대입제도의 의미

대입제도는 교육선발제도 중의 하나이다. 교육선발체제 중 가장 핵심적이면서 초·중등교육 전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입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대입제도’란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과정에 적용되는 제반 기준, 규칙과 절차(안선회, 2015: 111)’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교육선발제도란, ‘한 국가의 교육체제에서 교육기관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제반 기준, 규칙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선발제도는 법률과 명령 등 법체계와 정부정책 및 교육기관에 의해 정형화된 교육선발 방식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교육선발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급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정도까지 규정하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인력 수급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계층 이동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2022년 대선에서의 대입제도 개편 공약

지난 2022년 3월 9일에 치루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입제도 개편이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되어 교육정책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되었다. 다음 <표 1>은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약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약〉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사퇴)
<p>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비리 압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모찬스 없는 대입제도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 교육과정 개정으로 AI교육 확대하고 대입에도 반영 	<p>(1단계) 고교학점제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 •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 전형으로 개편 하여 ‘내신 성적 + 교사의 정성적 기록’만 반영 •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 수능 절대평가 확대 • 기회균등, 지역균형,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대학의 선발 결과에 대한 세부 통계 공개로 균형선발 유도 <p>(2단계) 대학 네트워크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자격고사화 • 전국단위 국공립대 네트워크 및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축 • 공동 이수 진행 및 공동 학위 부여, 이후 공동 전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찬스 수시폐지 • 정시 100% 전면화 • 부모찬스 입시비리, 채용비리 엄벌

* 안철수 후보는 중도 사퇴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였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고, 대입제도는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후보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약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를 제시한 바 있다.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약 의제 설정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2022)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과 관련해 눈에 띄는 건 대입 정시 확대의 실종이다. 대입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대입제도 개편 관련 내용은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

(~'24.2)”이다. 이로써 대입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부의제로 설정되었다.

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

1) 2022년 대선에서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교육부 방침

윤석열 정부 교육부(2022a)는 2022년 7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대입제도 마련”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민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4.2)에 반영하여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업무 추진 계획〉

취임 후 100일 내	'22.말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각론 시안 마련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 마련(12월)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수요조사(~11월) 및 최종 개정안 고시(12월) • 대입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공청회('23.上) 및 고교체제 개편 방안 확정('23.6) •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마련('23.上), 최종안 확정('24.2)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중앙일보(2022.11.28.)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에 대해 ‘참담하다’”고 표현하며, “다시 정시 비율을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인위적인 비율 조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방향이이다.

2)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추진 일정

교육부(2022a) 업무보고에 근거하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일정은 2022년 9월부터 대입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9월~)를 거친 후,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2022b)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대입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였다. ‘대입정책자문회의’는 고교 현장, 대학입학관계자,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자문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의 자문,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교육부, 2022b). ‘대입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3. 대입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의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교육학자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현석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계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박주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입학전문가	권오현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배영찬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유인영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이윤진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
고등학교교사	안성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
	최재훈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사
시도교육청	김대용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장소영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입학사정관	이승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사정관
	문미희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사정관
유관기관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기업	김 정	(주)코드스쿼드 대표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언론	곽수근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박흥기	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하지만, 교육부(2022b)가 발표한 ‘대입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를 추진할 의지와 정책방향을 가진 위원이 거의 없다고 파악된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임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입시제도 개

편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정책의 안정성을 언급하면서 입시변화는 소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주간조선, 2022.11.18.).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다시 정시 비율을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인위적인 비율 조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2022.11.28.).”고 분명히 정시 수능전형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이 공식적인 교육개혁의 정부의제가 됨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일반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를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일반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2022b)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대입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였으나, 여기에는 아예 교육정책의 주체이자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대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관련 요구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 연구용역으로,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의 요구를 확인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정책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주요 교육정책인 대입제도에 대한 학부모·시민 평가와 민의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입제도(대입전형 유형 포함)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와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셋째,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의 요구에 근거한 대입제도 개편의 정책적 시사점(대입제도 개편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Ⅱ. 대입제도 현황과 쟁점

1. 대입제도의 변화와 현황

가. 노무현정부 이후의 대입제도의 변화

지금까지 대입제도 변동의 핵심 원인은 정권 교체였다(안선희, 2018; 박봉서, 2018). 정권 교체는 어떤 형태나 어떤 수준으로든 반드시 대입정책의 변동을 수반하고 있었다. 또한 정권 교체는 대부분 교육과정 개편을 수반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과정이 교과서 개발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되면 그로부터 약 3년 후에는 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안선희, 2018: 94-98). 최근에 대입제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이다.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대입제도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대입제도 변화〉

구분	노무현정부 대입정책	이명박정부 대입정책	박근혜정부 대입정책	문재인정부 대입정책	
이념적 지향	형평성, 정부 규제 > 자율성	자율성 > 일부 규제	자율성 > 일부 규제	자율성 유지 하며 공공성 확대	
핵심적인 정책목표 (명분)	학교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 대입자율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학생 선택권 강화, 부담 완화 2015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대입 공정성, 공공성과 책무성	
추진방식	강력한 규제 수단: 재정 지원 박탈 종합적인 대입정책 일괄 추진	자율 원칙, 일부 규제 수단: 추가 재정 지원 자율화 틀에서 대증요법 정책	수단: 추가 재정지원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지원사업)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국민 중심 속의·공론화)	
전형 요소	학생부 전형	학생부 비중 확대 (주로 교과성적 중심 반영)	대입 자율화 확대 (수단: 입학사정관제 확대) * 확대된 학생부 비중 유지	수시 확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확대, 내신석차 9등급(상대평가) 유지	수시 학생부중심전형 70%까지 유지(정시 수능전형 30% 이상) 9등급(상대평가) 유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입학사정관제 확대 (비교과 비중 확대)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확대(비교과중시에서 교과중시로 변화)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특별 전형	특별전형 확대	(특기자 특별전형 확대)	실기위주전형 부분 확대	-
	수능	수능등급제 도입 적용 (9등급만 제공)	수능 반영 자율화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제공)	정시 수능전형 축소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제공)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폐지	정시 수능전형 30% 이상(다만, 서울소재 16개대학은 정시수능전형 40% 이상)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대학자율이나 사실상 제한)
		-	수준별 수능과 수능과목 축소 NEAT의 수능영어 대체 시도	수준별 수능 폐지 한국사 영어 절대평가	선택형 수능으로 개편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EBS인터넷수능강의)	수능-EBS 연계(70%) 강화	수능-EBS 연계(70%) 유지	수능-EBS 연계(50%) 유지
	논술 등	(논술 축소 의도, 실제로는 확대)	논술 비중 축소 적성고사 자율	논술 비중 계속 축소 적성고사 자율	논술 축소 폐지 유도 적성고사 폐지, 구술고사 최소화
결과 (학생, 학부모)	내신, 수능, 논술 3중 부담 수시 확대, 대입 복잡화 시작 고교생 사교육비 증가	3중부담 유지, 공정성 악화 수시 확대, 대입 복잡성 확대 고교생 사교육비 일부 증가	수시 확대로 대입 복잡성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공정성 악화. 교육불평등 확대, 사교육비 증가, 대입부정 증가	확대된 수시 학생부전형 유지 학생부전형 공정성 문제 여전 최근 대입 관련 성적 부정 사례 적발 증가	
공통점 (학부모·국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	학생부 반영 비중 증대(수능, 논술 축소)로 고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으로의 변신과 전면 확대, 학생부 비교과 중시, 수시와 특별전형 확대, 그 결과 대입 복잡성 증대, 공정성 점차 더 악화 정책인과가설의 타당성 부족, 정책집행과정에서 재정지원수단 사용, 학교교육의 책무성 약화 사교육비 증가와 높은 수준의 유지, 학교교육만족도 항상 미흡, 학부모·국민 불만 증대				

출처: 안선희, 대입제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연계성 분석: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1), 57-92, 2018b 일부 수정함.

나. 문재인정부 시기 대입제도 정책 변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입제도에 관해서만 세 번에 걸친 제도 변동이 있었다. 2017년에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유예하는 정책결정이 있었고, 2018년에는 대입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교육부, 2018)’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단, 2019)’을 확정 발표하였다(안선희, 2021: 244).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근 대입제도 정책결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실태조사단, 2019)’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둘째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셋째 대입전형 구조 개편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전형 구조개편의 내용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논술 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방침은 2023학년도까지 완성하되, 2022학년도 조기달성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 내용은 학종 비율의 축소 외에는 대체로 정시 수능전형 비율 확대 등의 여론을 반영하였기에 대입정책에 대한 불만을 약화시키고 정책갈등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안선희, 2020).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실태조사단, 2019)’에 근거하여 문재인정부 시기의 대입제도 변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재인정부 시기의 대입제도 변화〉

전형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과제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1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 교과 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3.0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2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3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출처: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2019

다. 2022년 현재 대입제도 현황

1) 한국의 대입전형 체계(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a)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전형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한다. 여기에서 전형방법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의미한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산정한다.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평가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 안내한다.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정원 내 전형 기준). 구체적으로는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산정에서 제외한다. '성인학습자전형', '협약된 군사학과'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의 인·적성 평가,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동일 전형방법 내에서 우선 선발 방식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하고 있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구분을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등이다. 여기에서 OO위주 전형은 전형요소인 OO이 50% 이상 반영되는 전형을 의미한다.

<표 6. 대입 전형 유형과 주요 전형요소>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 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 논술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 수능 등
	실기/실적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실기/실적위주 전형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하며,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22a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차이점 비교>

구분	수시전형	정시전형
개념	대학에서 정시모집 전에 입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전형제도	대학에서 일정 시기에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제도
일정	9월 원서접수, 12월 15일까지 합격자발표	1월초 원서접수, 2월 6일까지 발표
주요 전형	주로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학생부,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 권고	주로 수능위주전형 *수능, 실기/실적 위주 운영 권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전형요소(내신성적, 기록, 면접, 논술 등) 활용. 주로 학생부 중심 선발 • 6개 전형 이내 복수지원 가능 • 교과성적과 서류평가(정성평가) 개입 • 지방대학들이 수시로 ‘학생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수능위주전형 • 전형방법이 매우 단순 • 최근 급격히 감소. 현재 최소 비율 • 가군, 나군, 다군 별로 지원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업성적과 학생 잠재력, 소질, 전공적 합성 평가(학종) ② 비교적 많은 지원기회(6번) ③ 학생부관리 잘한 학생 유리(성실성) ④ 비교적 타당한 전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형 ②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③ 내신성적 미흡학생 재도전기회 제공 ④ 비교적 수능사교육비 저렴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형 매우 복잡 ② 정보 비대칭성과 그 영향 ③ 주관적 평가로 불공정 선발 논란 ④ 소득격차 반영 ⑤ 수시납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능시험 1회, ② 지원기회 제한(3번) ③ 눈치싸움(이번 가능) ④ 총점 경쟁, 전형 타당성 미흡(국어 수학 비중 과다)

2) 2021학년도까지의 대입전형 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전형이 77.3%, 정시전형은 22.7%이며, 수능위주전형은 전체의 19.9%로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표 8. 2018~2021학년도 대입전형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변화〉

구분	전형 유형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 (교과)	146,924	42.3	147,345	42.4	144,340명 (54.3%)	41.4%	140,935명 (54.3%)	40.0%
	학생부 (종합)	86,083	24.8	85,168	24.4	84,764명 (31.9%)	24.3%	83,231명 (32.0%)	23.6%
	논술 위주	11,162	3.2	12,146	3.5	13,310명 (5.0%)	3.8%	13,120명 (5.1%)	3.7%
	실기 위주	18,821	5.4	19,377	5.6	19,383명 (7.3%)	5.6%	18,466명 (7.1%)	5.3%
	기타	4,384	1.3	4,740	1.4	4,065명 (1.5%)	1.2%	3,921명 (1.5%)	1.1%
소계		267,374	77.0	268,776	77.3	265,862명 (100.0%)	76.2%	259,673명 (100.0%)	73.7%
정시	수능 위주	70,771	20.4	69,291	19.9	72,251명 (87.1%)	20.7%	80,311명 (86.7%)	22.8%
	실기 위주	8,356	2.4	8,968	2.6	9,819명 (11.8%)	2.8%	11,334명 (12.2%)	3.2%
	학생부 (교과)	270	0.1	281	0.1	332명 (0.4%)	0.1%	491명 (0.5%)	0.1%
	학생부 (종합)	424	0.1	436	0.1	445명 (0.5%)	0.1%	435명 (0.5%)	0.1%
	기타	252	0.0	114	0.0	125명 (0.2%)	0.0%	81명 (0.1%)	0.0%
소계		80,073	23.0	79,090	22.7	82,972명 (100.0%)	23.8%	92,652명 (100.0%)	26.3%
합계		347,447	100.0	347,866	100.0	348,834명	100.0%	352,325명	100.0%

출처: 각 연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참조

3) 서울 소재 15개 대학 전형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

하지만 서울 소재 15개 대학은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전형이 70.5%, 정시전형은 29.5%이며, 수능위주전형은 전체의 26.9%였다.

〈표 9. 2020학년도 서울소재 15개 대학 모집 현황〉

(단위: 명)

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위주	실기위주 (특기자포함)		기타 (재외국 인)	수능		실기	학종 외	
	내	외	내	외		내	외		내	외			
서울대			2,495	164					684			18	3,361
고려대	400		2,338	255		403	18		658	12			4,084
연세대			1,091	199	607	599			1,136				3,632
서강대			868	9	235				473	93			1,678
성균관대			1,806	193	532	103			1,128				3,762
한양대	288		1,078	154	376	199			868	167			3,130
이화여대	390		898		543	417			523	180	260		3,211
중앙대	587		1,335	212	827	406		88	868	244	307	40	4,914
경희대			2,314	377	714	336			1,247		212		5,200
한국외대	204		503		378	55		33	539	92			1,804
서울시립대	202	102	727		142	4			533		102		1,812
건국대			1,336	321	451	28		60	1,055		136		3,387
동국대			1,225	271	470	161			842	27			2,996
홍익대	397		670	185	397				929	75			2,653
숙명여대	260		708	224	300	151			522	31	175		2,371
합계	2,728	102	19,392	2,564	5,972	2,862	18	181	12,005	921	1,192	58	47,995
비율(%)	5.68	0.21	40.4	5.34	12.44	5.96	0.04	0.38	25.01	1.92	2.48	0.12	100

출처: 각 대학별 모집요강 참조

서울 소재 15개 대학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45.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부교과전형은 5.9%에 불과하였다. 과도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로 인하여 이들 주요 대입전형의 불공정성 심화와 그로 인한 신뢰성 하락과 불평등 증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표 10. 2020학년도 전국 vs 서울 소재 15개 대학 모집 인원 비율 현황〉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전국대학		인 서울 15개 대학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47,345	42.4	2,830	5.9
	학생부(종합)_정원내	73,408	21.1	19,392	40.4
	학생부(종합)_정원외	11,760	3.4	2,564	5.3
	논술 위주	12,146	3.5	5,972	12.4
	실기 위주	19,377	5.6	2,880	6.0
	기타(재외국민)	4,740	1.4	181	0.4
	소계	268,776	77.3	33,819	70.4
정시	수능 위주	69,291	19.9	12,926	27.0
	실기 위주	8,968	2.6	1,192	2.5
	학생부(교과)	281	0.1		
	학생부(종합)_정원내	96	0.0		
	학생부(종합)_정원외	340	0.1	58	0.1
	기타(재외국민)	114	0.0		
	소계	79,090	22.7	14,176	29.6
합계		347,866	100.0	47,995	100.0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18 참조

4)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대입전형 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

2022, 2023, 2024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2023학년도는 전체 모집인원 78%, 2024학년도는 전체 모집인원 79%를 수시로 선발한다. 둘째, 정시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2023학년도는 전체 모집인원 22%, 2024학년도는 전체 모집인원 21%를 정시로 선발한다. 셋째, 정시 수능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19.3%로 대입제도 역사상 가장 최저수준이다.

〈표 11. 최근 대입전형 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4학년도(A)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2021학년도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154,121	44.8%	154,464	44.2%	148,506	42.9%	146,924	42.3%
	학생부위주 (종합)	79,358	23.0%	81,390	23.3%	79,503	22.9%	86,083	24.8%
	논술위주	11,214	3.3%	11,016	3.2%	11,069	3.2%	11,162	3.2%
	실기/실적 위주	22,539	6.5%	21,014	6.0%	18,817	5.4%	18,821	5.4%
	기타	4,800	1.4%	4,558	1.3%	4,483	1.3%	4,384	1.3%
소계		272,032	79.0%	272,442	78.0%	262,378	75.7%	267,374	77.0%
정시	수능위주	66,300	19.3%	69,911	20.0%	75,978	21.9%	70,771	20.4%
	실기/실적 위주	5,515	1.6%	6,150	1.8%	7,470	2.2%	8,356	2.4%
	학생부위주 (교과)	228	0.1%	252	0.1%	201	0.1%	270	0.1%
	학생부위주 (종합)	162	0.0%	313	0.1%	347	0.1%	424	0.1%
	기타	59	0.0%	56	0.0%	179	0.1%	252	0.0%
소계		72,264	21.0%	76,682	22.0%	84,175	24.3%	80,073	23.0%
합계		344,296	100.0%	349,124	100.0%	346,553	100.0%	347,447	100.0%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각 연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참조

5)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전형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학생부위주전형이 전체의 47.1%, 논술위주전형이 8.7%를 차지하는 반면, 수능위주전형은 37.6%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부위주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의 3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11.3%를 차지한다.

〈표 12. 2022학년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모집 현황〉

(단위: 명)

학년도	22학년도												합계
	수능위주		학생부위주 (교과)		학생부위주 (종합)		논술위주		실기/ 실적위주		기타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건국대	1,359	40.0%	340	10.0%	1,174	34.6%	435	12.8%	28	0.8%	60	1.8%	3,396
경희대	1,970	37.0%	544	10.2%	1,698	31.9%	493	9.3%	518	9.7%	100	1.9%	5,323
고려대	1,682	40.1%	839	20.0%	1,524	36.3%	0	0.0%	73	1.7%	75	1.8%	4,193
광운대	672	35.0%	202	10.5%	809	42.2%	187	9.7%	16	0.8%	33	1.7%	1,919
동국대	1,225	40.0%	398	13.0%	911	29.8%	340	11.1%	134	4.4%	54	1.8%	3,062
서강대	696	40.6%	172	10.0%	647	37.7%	169	9.9%	0	0.0%	31	1.8%	1,715
서울대	1,029	30.1%	0	0.0%	2,394	69.9%	0	0.0%	0	0.0%	0	0.0%	3,423
서울시립대	729	40.4%	323	17.9%	612	33.9%	77	4.3%	65	3.6%	0	0.0%	1,806
서울여대	686	40.1%	182	10.6%	615	35.9%	120	7.0%	77	4.5%	31	1.8%	1,711
성균관대	1,448	39.4%	361	9.8%	1,340	36.5%	357	9.7%	103	2.8%	67	1.8%	3,676
숙명여대	808	33.4%	243	10.1%	728	30.1%	228	9.4%	246	10.2%	163	6.7%	2,416
숭실대	1,129	37.0%	474	15.5%	977	32.0%	281	9.2%	139	4.6%	53	1.7%	3,053
연세대	1,512	40.1%	523	13.9%	1,041	27.6%	346	9.2%	285	7.5%	68	1.8%	3,775
중앙대	1,533	30.7%	501	10.0%	1,630	32.6%	686	13.7%	557	11.1%	92	1.8%	4,999
한국외대	1,539	42.4%	373	10.3%	1,173	32.3%	477	13.1%	0	0.0%	67	1.8%	3,629
한양대	1,279	40.1%	320	10.0%	1,070	33.5%	241	7.6%	226	7.1%	56	1.8%	3,192
총합계	19,296	37.6%	5,795	11.3%	18,343	35.8%	4,437	8.7%	2,467	4.8%	950	1.9%	51,288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20 참조

하지만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들은 2023학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받았다(교육부, 2019b). 이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의 33.8%, 논술위주전형이 4.7%로 감소한 반면, 수능위주전형은 40.5%로 증가하여 교육부 지침대로 수능의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표 13. 2023학년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모집 현황〉

(단위: 명)

학년도	23학년도												합계
	수능위주		학생부위주 (교과)		학생부위주 (종합)		논술위주		실기/ 실적위주		기타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건국대	1,361	40.0%	341	10.0%	1,177	34.6%	28	0.8%	434	12.8%	60	1.8%	3,401
경희대	2,176	40.2%	555	10.3%	1,548	28.6%	547	10.1%	487	9.0%	100	1.8%	5,413
고려대	1,709	40.0%	871	20.4%	1,548	36.2%	70	1.6%	0	0.0%	75	1.8%	4,273
광운대	768	40.0%	194	10.1%	722	37.6%	15	0.8%	187	9.7%	33	1.7%	1,919
동국대	1,254	40.0%	407	13.0%	975	31.1%	135	4.3%	312	9.9%	54	1.7%	3,137
서강대	695	40.5%	172	10.0%	651	37.9%	0	0.0%	169	9.8%	31	1.8%	1,718
서울대	1,395	40.2%	0	0.0%	2,077	59.8%	0	0.0%	0	0.0%	0	0.0%	3,472
서울시립대	846	45.9%	255	12.2%	630	34.2%	65	3.5%	77	4.2%	0	0.0%	1,843
서울여대	699	40.0%	186	10.6%	638	36.5%	73	4.2%	120	6.9%	31	1.8%	1,747
성균관대	1,475	40.1%	370	10.1%	1,300	35.3%	107	2.9%	360	9.8%	66	1.8%	3,678
숙명여대	983	40.0%	251	10.2%	592	24.1%	242	9.9%	227	9.2%	161	6.6%	2,456
숭실대	1,235	40.0%	447	14.5%	967	31.3%	115	3.7%	269	8.7%	53	1.7%	3,086
연세대	1,519	40.1%	523	13.8%	1,047	27.6%	285	7.5%	346	9.1%	68	1.8%	3,788
중앙대	2,023	40.0%	505	10.0%	1,402	27.7%	549	10.9%	487	9.6%	91	1.8%	5,057
한국외대	1,553	42.6%	373	10.2%	1,173	32.2%	0	0.0%	477	13.1%	67	1.8%	3,643
한양대	1,320	40.1%	331	10.0%	1,115	33.8%	226	6.9%	246	7.5%	56	1.7%	3,294
총합계	21,011	40.5%	5,751	11.1%	17,562	33.8%	2,457	4.7%	4,198	8.1%	946	1.8%	51,925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21 참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전년도까지 감소하던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의 34.0%, 논술위주전형이 8.0%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수능위주전형도 40.6%로 증가하여 40% 이상의 수능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이 10.9%, 실기 및 실적위주전형이 4.7%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4. 2024학년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모집 현황〉

(단위: 명)

학년도	24학년도												합계
	수능위주		학생부위주 (교과)		학생부위주 (종합)		논술위주		실기/ 실적위주		기타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선발 비율	
건국대	1,411	41.6%	342	10.1%	1,115	32.9%	434	12.8%	28	0.8%	60	1.8%	3,390
경희대	2,178	40.3%	577	10.7%	1,538	28.5%	480	8.9%	535	9.9%	94	1.7%	5,402
고려대	1,738	40.3%	666	15.5%	1,759	40.8%	0	0.0%	70	1.6%	75	1.8%	4,308
광운대	768	40.0%	194	10.1%	723	37.7%	184	9.6%	16	0.8%	33	1.8%	1,918
동국대	1,256	40.0%	552	17.6%	810	25.8%	299	9.5%	168	5.4%	54	1.7%	3,139
서강대	691	40.3%	172	10.0%	653	38.1%	169	9.8%	0	0.0%	31	1.8%	1,716
서울대	1,425	41.0%	0	0.0%	2,051	59.0%	0	0.0%	0	0.0%	0	0.0%	3,476
서울시립대	814	44.2%	230	12.5%	627	34.1%	75	4.1%	94	5.1%	0	0.0%	1,840
서울여대	702	40.1%	188	10.7%	637	36.4%	120	6.9%	72	4.1%	31	1.8%	1,750
성균관대	1,540	40.0%	388	10.1%	1,366	35.5%	382	9.9%	106	2.8%	66	1.7%	3,848
숙명여대	985	40.3%	251	10.3%	606	24.8%	217	8.9%	224	9.2%	164	6.5%	2,447
숭실대	1,228	40.1%	435	14.2%	964	31.5%	267	8.7%	115	3.8%	53	1.7%	3,062
연세대	1,545	40.3%	487	12.7%	1,106	28.8%	346	9.0%	282	7.4%	68	1.8%	3,834
중앙대	1,994	40.1%	504	10.1%	1,419	28.5%	478	9.6%	492	9.9%	87	1.8%	4,974
한국외대	1,548	42.5%	372	10.2%	1,187	32.6%	472	12.9%	0	0.0%	67	1.8%	3,646
한양대	1,335	40.1%	338	10.2%	1,136	34.2%	236	7.1%	225	6.8%	56	1.6%	3,326
총합계	21,158	40.6%	5,696	10.9%	17,697	34.0%	4,159	8.0%	2,427	4.7%	970	1.8%	52,076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22b 참조

2. 대입제도의 쟁점

가.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 관련 쟁점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연구진은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대입제도 관련 전반적인 만족도 및 인식과 관련된 조사 쟁점을 도출하면 다음 <표 15.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과 관련된 조사 쟁점>과 같다.

<표 15.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

구분	주요 쟁점
전반적인 만족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현행 대입제도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한 만족도 ○ 현행 대입제도의 사교육비 증가 관련성에 대한 만족도 *최근 5년 간 사교육비 증가 동향 제시 ○ 현행 대입제도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인식 ○ 현행 대입제도의 수시(주로 학생부위주전형)와 정시(주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만족도 (*2023, 2024학년도 대입전형 현황 제시) ○ 현행 대입제도의 복잡성과 간소화 정도에 대한 인식 ○ 현행 대입전형 유형별 복잡성에 대한 인식 ○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에 대한 인식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만족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학생부종합전형의 사교육비 증가 관련성에 대한 인식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한 인식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인식
학생부교과전형 관련 만족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학생부교과전형의 사교육비 증가 관련성에 대한 만족도 ○ 학생부교과전형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한 만족도 ○ 학생부교과전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인식
수능위주전형 관련 만족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 수능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정시 수능전형의 비율에 대한 만족도 ○ 정시 수능전형의 사교육비 증가 관련성에 대한 인식 ○ 정시 수능전형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한 인식 ○ 정시 수능전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인식 ○ 수능 1회 시행이라는 수능시행 횟수에 대한 인식

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 도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 쟁점을 도출하면 다음 <표 16.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과 같다.

<표 16.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

구분	주요 쟁점
총체적인 쟁점 - 수시와 정시 비율 -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 수능전형의 비율 확대에 대한 요구 ○ 수시와 정시 통합에 대한 요구 ○ 수능 절대평가 시행과 영향력 축소에 대한 요구 ○ 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학생부위주전형 전면 확대에 대한 요구 ○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점수에 근거한 학생선발비율(예시 50%) 법제화에 대한 요구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확대 및 축소·폐지 관련 요구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에 대한 요구
학생부 교과전형 관련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및 축소·폐지 관련 요구 ○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에 대한 요구 ○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교과정성전형으로 변경하여 확대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바꾸자는 정책주장에 대한 요구 ○ 학생부교과전형 운영방식에 대한 요구: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정량반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정량적으로 반영에 대한 요구(현재 대부분 대학) -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만 반영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종합특성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주관적 정성평가 50% 이내로 다양하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일부 소수 대학) - 학생부 교과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고, 10% 이내로 면접점수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일부 대학)
수능 위주 전형 관련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위주전형 개념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수능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고, 면접 점수를 10% 이내로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수능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 면접 점수 등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전형. - 수능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고, 학생부 교과, 면접 등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전형 비율 100% 이상(수능전형으로만 학생 선발) - 수능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 80% 이상 - 수능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 65% 이상 - 수능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 50% 이상 - 수능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 80% 이상 ○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점수에 근거한 학생선발비율(예시 50%) 법제화에 대한 요구 ○ 수능시험에 논·서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 ○ 수능시험을 합격·불합격만 판정하는 자격고사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 ○ 수능시험 시행 횟수 문제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에 수시용 수능시험을 한 번 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
--	---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과 방법

서울시 학부모들의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에 속하며, 학생과 더불어 대입제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중 특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현행 2023, 2024학년도 대입제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서울시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20개 학교별로 각 학년 재학생 학부모를 1명씩 표집하고자 하였다. 연구계획서에서 설정한 표본은 200명이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1개 학교당 3명을 무작위 표집하여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표집된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전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158명에 그쳤다.

2. 조사 도구

대입제도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진과 자문위원 3인의 검토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표 17. 조사 항목>과 같이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의 일반적인 특성과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대입제도 개편 방법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17. 조사 항목〉

조사 영역	분류	내 용
인구사회학적 질문	인구학적 속성	자녀의 학년
	사회학적 속성	거주지, 경제수준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 조사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8문항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8문항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	7문항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인식	8문항
	대입제도 전형유형 비율	3문항
	대입제도 전형유형의 개념규정방법	3문항
대입제도 개편 요구 조사	전반적인 대입제도 개편방법	6문항
	학생부위주전형 개편방법	7문항
	수능위주전형 개편방법	9문항
	논술위주전형 등 개편방법	3문항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 플랫폼(<https://ko.surveymonkey.com/r/7X2WWZF>)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수집하였다. 온라인 조사 플랫폼 ‘서베이몽키(SurveyMonkey)’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설문조사 툴이다. 이는 다양한 로직과 기능을 통해 맞춤형 설문지 구상과 각 응답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조사 플랫폼인 서베이몽키에 의한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일 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총 158명이었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학기 말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차원의 협조가 미흡하였던 때문에 참여 인원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 참여자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의 학부모가 74명(46.8%)였고, 2학

년 재학생의 학부모는 43명(27.2%)였고, 3학년 재학생의 학부모는 41명(25.9%)였다. 설문조사 시기가 대입정시 지원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고3 학부모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5개 구 학부모가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나, 구별 참여자 수에서는 편차가 발생하였다. 참여자 수를 보면 강남구(37명) > 양천구(18명) > 노원구(15명) > 서초구(12명) > 마포구, 송파구(각 7명) 등의 순이었다. 각 1명의 참여자가 참여한 지역(구)는 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4개 구였다. 이를 통해 지역 대표성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강남 3구'로, 나머지 구들을 '그 외'로 분류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경제수준 즉 계층별로 보면, 상층(상류층) 참여자가 28명(17.7%)이었고, 중층(중산층) 참여자는 106명(67.1%)이었으며, 하층(서민층) 참여자는 24명(15.2%)이었다. 계층별 참여자는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학부모의 대입제도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본적인 응답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의 배경변인별 및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8.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서울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표본 선정	서울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별 각 학년 1개 학급 학부모 1명 표집
표본 수	총 15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7.79%
조사방법	서베이몽키 플랫폼을 통한 웹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22년 12월 19일 - 2022년 12월 26일 (8일간)

IV. 조사 결과

1. 대입제도 만족도 및 인식 조사 결과

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1)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대부분(79.1%)은 불만족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0.3%), 강남3구의 경우(89.3%),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92.9%) 응답자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표 19〉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4(59.5)	14(18.9)	15(20.3)	1(1.4)	0(0.0)	74(100.0)
	2학년	17(39.5)	13(30.2)	12(27.9)	1(2.3)	0(0.0)	43(100.0)
	3학년	27(65.9)	10(24.4)	3(7.3)	1(2.4)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0(71.4)	10(17.9)	6(10.7)	0(0.0)	0(0.0)	56(100.0)
	그 외	48(47.1)	27(26.5)	24(23.5)	3(2.9)	0(0.0)	102(100.0)
경제 수준	상	21(75.0)	5(17.9)	2(7.1)	0(0.0)	0(0.0)	28(100.0)
	중	54(50.9)	26(24.5)	23(21.7)	3(2.8)	0(0.0)	106(100.0)
	하	13(54.2)	6(25.0)	5(20.8)	0(0.0)	0(0.0)	24(100.0)
전체		88(55.7)	37(23.4)	30(19.0)	3(1.9)	0(0.0)	158(100.0)

2) 현행 대입제도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한 효과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7.7%는 현행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2학년 재학생의 경우(69.8%), 강남3구의 경우(71.5%),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75%) 높은 비율로 현행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20〉 공교육 정상화

단위: 명(%)

구분		크게 저해	약간 저해	영향 없음	약간 기여	크게 기여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7(50.0)	13(17.6)	13(17.6)	10(13.5)	1(1.4)	74(100.0)
	2학년	18(41.9)	12(27.9)	8(18.6)	4(9.3)	1(2.3)	43(100.0)
	3학년	18(43.9)	9(22.0)	10(24.4)	4(9.8)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1(55.4)	9(16.1)	12(21.4)	3(5.4)	1(1.8)	56(100.0)
	그 외	42(41.2)	25(24.5)	19(18.6)	15(14.7)	1(1.0)	102(100.0)
경제 수준	상	13(46.4)	7(25.0)	5(17.9)	2(7.1)	1(3.6)	28(100.0)
	중	50(47.2)	19(17.9)	22(20.8)	14(13.2)	1(0.9)	106(100.0)
	하	10(41.7)	8(33.3)	4(16.7)	2(8.3)	0(0.0)	24(100.0)
전체		73(46.2)	34(21.5)	31(19.6)	18(11.4)	2(1.3)	158(100.0)

3) 현행 대입제도의 사교육비 증가 또는 경감 유발 효과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7.4%는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0.3%), 강남3구의 경우(98.2%),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96.4%) 높은 비율로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표 21〉 사교육비 유발 효과

단위: 명(%)

구분		크게 증가	약간 증가	영향 없음	약간 경감	크게 경감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8(64.9)	18(24.3)	7(9.5)	1(1.4)	0(0.0)	74(100.0)
	2학년	24(55.8)	11(25.6)	5(11.6)	2(4.7)	1(2.3)	43(100.0)
	3학년	28(68.3)	9(22.0)	4(9.8)	0(0.0)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0(71.4)	15(26.8)	1(1.8)	0(0.0)	0(0.0)	56(100.0)
	그 외	60(58.8)	23(22.5)	15(14.7)	3(2.9)	1(1.0)	102(100.0)
경제 수준	상	21(75.0)	6(21.4)	1(3.6)	0(0.0)	0(0.0)	28(100.0)
	중	65(61.3)	27(25.5)	12(11.3)	2(1.9)	0(0.0)	106(100.0)
	하	14(58.3)	5(20.8)	3(12.5)	1(4.2)	1(4.2)	24(100.0)
전체		100(63.3)	38(24.1)	16(10.1)	3(1.9)	1(0.6)	158(100.0)

4) 현행대입제도의 선발 공정성(학생의 노력과 성취에 따른 선발 효과)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2.3%는 현행 대입제도의 선발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2.6%), 강남3구의 경우(85.7%),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92.8%) 높은 비율로 현행 대입제도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답했다.

〈표 22〉 학생 선발의 공정성

단위: 명(%)

구분		크게 저해	약간 저해	영향 없음	약간 기여	크게 기여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6(48.6)	22(29.7)	10(13.5)	6(8.1)	0(0.0)	74(100.0)
	2학년	19(44.2)	15(34.9)	4(9.3)	5(11.6)	0(0.0)	43(100.0)
	3학년	24(58.5)	14(34.1)	1(2.4)	2(4.9)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4(60.7)	14(25.0)	4(7.1)	4(7.1)	0(0.0)	56(100.0)
	그 외	45(44.1)	37(36.3)	11(10.8)	9(8.8)	0(0.0)	102(100.0)
경제 수준	상	17(60.7)	9(32.1)	2(7.1)	0(0.0)	0(0.0)	28(100.0)
	중	50(47.2)	33(31.1)	11(10.4)	12(11.3)	0(0.0)	106(100.0)
	하	12(50.0)	9(37.5)	2(8.3)	1(4.2)	0(0.0)	24(100.0)
전체		79(50.0)	51(32.3)	15(9.5)	13(8.2)	0(0.0)	158(100.0)

5) 현행대입제도의 형평성(선발 불평등 개선, 사회약자 배려 효과)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8.9%는 현행 대입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78%), 강남3구의 경우(73.2%),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82.1%) 높은 비율로 현행 대입제도가 학생 선발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답했다.

〈표 23〉 학생 선발의 형평성

단위: 명(%)

구분		크게 저해	약간 저해	영향 없음	약간 기여	크게 기여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5(47.3)	18(24.3)	12(16.2)	9(12.2)	0(0.0)	74(100.0)
	2학년	11(25.6)	13(30.2)	6(14.0)	10(23.3)	3(7.0)	43(100.0)
	3학년	19(46.3)	13(31.7)	6(14.6)	3(7.3)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8(50.0)	13(23.2)	7(12.5)	7(12.5)	1(1.8)	56(100.0)
	그 외	37(36.3)	31(30.4)	17(16.7)	15(14.7)	2(2.0)	102(100.0)
경제 수준	상	14(50.0)	9(32.1)	2(7.1)	3(10.7)	0(0.0)	28(100.0)
	중	41(38.7)	28(26.4)	17(16.0)	18(17.0)	2(1.9)	106(100.0)
	하	10(41.7)	7(29.2)	5(20.8)	1(4.2)	1(4.2)	24(100.0)
전체		65(41.1)	44(27.8)	24(15.2)	22(13.9)	3(2.0)	158(100.0)

6) 현행대입제도의 투명성(선발기준 공개 정보, 합격·불합격 이유 확인 가능성)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8.5%는 현행 대입제도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5.2%), 강남3구의 경우(89.2%),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95.8%) 높은 비율로 현행 대입제도가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답했다.

〈표 24〉 학생 선발의 투명성

단위: 명(%)

구분		크게 저해	약간 저해	영향 없음	약간 기여	크게 기여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8(51.4)	18(24.3)	7(9.5)	10(13.5)	1(1.4)	74(100.0)
	2학년	17(39.5)	12(27.9)	5(11.6)	9(20.9)	0(0.0)	43(100.0)
	3학년	30(73.2)	9(22.0)	0(0.0)	2(4.9)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9(69.6)	11(19.6)	1(1.8)	4(7.1)	1(1.8)	56(100.0)
	그 외	46(45.1)	28(27.5)	11(10.8)	17(16.7)	0(0.0)	102(100.0)
경제 수준	상	17(60.7)	7(25.0)	1(3.6)	2(7.1)	1(3.6)	28(100.0)
	중	56(52.8)	21(19.8)	11(10.4)	18(17.0)	0(0.0)	106(100.0)
	하	12(50.0)	11(45.8)	0(0.0)	1(4.2)	0(0.0)	24(100.0)
전체		85(53.8)	39(24.7)	12(7.6)	21(13.3)	1(0.6)	158(100.0)

7) 현행대입제도 전반의 복잡성과 간소화 정도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91.8%는 현행 대입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5.1%), 강남3구의 경우(94.6%),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100%) 현행 대입제도의 복잡성 및 간소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 25〉 현행대입제도의 복잡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복잡함	대체로 복잡함	적절 수준	대체로 간소함	매우 간소함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8(64.9)	21(28.4)	3(4.1)	2(2.7)	0(0.0)	74(100.0)
	2학년	20(46.5)	17(39.5)	4(9.3)	2(4.7)	0(0.0)	43(100.0)
	3학년	29(70.7)	10(24.4)	2(4.9)	0(0.0)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2(75.0)	11(19.6)	3(5.4)	0(0.0)	0(0.0)	56(100.0)
	그 외	55(53.9)	37(36.3)	6(5.9)	4(3.9)	0(0.0)	102(100.0)
경제 수준	상	24(85.7)	4(14.3)	0(0.0)	0(0.0)	0(0.0)	28(100.0)
	중	59(55.7)	38(35.8)	8(7.5)	1(0.9)	0(0.0)	106(100.0)
	하	14(58.3)	6(25.0)	1(4.2)	3(12.5)	0(0.0)	24(100.0)
전체		97(61.4)	48(30.4)	9(5.7)	4(2.5)	0(0.0)	158(100.0)

8) 현행대입제도 내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과반수인 58.3%가 수시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기에 불만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1학년 재학생(60.8%), 그 외의 구(59.8%),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75%), 다소 높은 비율로 수시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 26〉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상관없음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9(39.2)	16(21.6)	7(9.5)	15(20.3)	7(9.5)	74(100.0)
	2학년	15(34.9)	10(23.3)	0(0.0)	11(25.6)	7(16.3)	43(100.0)
	3학년	16(39.0)	6(14.6)	3(7.3)	6(14.6)	10(24.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1(37.5)	10(17.9)	6(10.7)	11(19.6)	8(14.3)	56(100.0)
	그 외	39(38.2)	22(21.6)	4(3.9)	21(20.6)	16(15.7)	102(100.0)
경제 수준	상	10(35.7)	6(21.4)	2(7.1)	4(14.3)	6(21.4)	28(100.0)
	중	36(34.0)	22(20.8)	8(7.5)	22(20.8)	18(17.0)	106(100.0)
	하	14(58.3)	4(16.7)	0(0.0)	6(25.0)	0(0.0)	24(100.0)
전체		60(38.0)	32(20.3)	10(6.3)	32(20.2)	24(15.2)	158(100.0)

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1) 내신과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8.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과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93.3%), 강남3구의 경우(96.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2.8%),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 27〉 사교육비 경감 효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52(70.3)	17(23.0)	4(5.4)	1(1.4)	74(100.0)
	2학년	21(48.8)	14(32.6)	8(18.6)	0(0.0)	43(100.0)
	3학년	29(70.7)	7(17.1)	3(7.3)	2(4.9)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7(83.9)	7(12.5)	2(3.6)	0(0.0)	56(100.0)
	그 외	55(53.9)	31(30.4)	13(12.7)	3(2.9)	102(100.0)
경제 수준	상	20(71.4)	6(21.4)	1(3.6)	1(3.6)	28(100.0)
	중	68(64.2)	27(25.5)	10(9.4)	1(0.9)	106(100.0)
	하	14(58.3)	5(20.8)	4(16.7)	1(4.2)	24(100.0)
전체		102(64.6)	38(24.0)	15(9.5)	3(1.9)	158(100.0)

2)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0.4%가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85.2%)와 강남3구의 경우(89.3%)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에서는 '상'에 속하는 경우(82.2%)와 '중'에 속하는 경우(82.1%) 유사한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표 28〉 고교교육 정상화 효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8(64.9)	15(20.3)	11(14.9)	0(0.0)	74(100.0)
	2학년	14(32.6)	18(41.9)	9(20.9)	2(4.7)	43(100.0)
	3학년	23(56.1)	9(22.0)	7(17.1)	2(4.9)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0(71.4)	10(17.9)	6(10.7)	0(0.0)	56(100.0)
	그 외	45(44.1)	32(31.4)	21(20.6)	4(3.9)	102(100.0)
경제 수준	상	18(64.3)	5(17.9)	5(17.9)	0(0.0)	28(100.0)
	중	55(51.9)	32(30.2)	17(16.0)	2(1.9)	106(100.0)
	하	12(50.0)	5(20.8)	5(20.8)	2(8.3)	24(100.0)
전체		85(53.8)	42(26.6)	27(17.1)	4(2.5)	158(100.0)

3) 학생의 노력 및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4.8%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87.9%), 강남3구의 경우(89.3%),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91.7%),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 29〉 공정한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2(56.8)	23(31.1)	9(12.2)	0(0.0)	74(100.0)
	2학년	15(34.9)	19(44.2)	8(18.6)	1(2.3)	43(100.0)
	3학년	25(61.0)	10(24.4)	5(12.2)	1(2.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7(66.1)	13(23.2)	6(10.7)	0(0.0)	56(100.0)
	그 외	45(44.1)	39(38.2)	16(15.7)	2(2.0)	102(100.0)
경제 수준	상	17(60.7)	6(21.4)	5(17.9)	0(0.0)	28(100.0)
	중	52(49.1)	37(34.9)	15(14.2)	2(1.9)	106(100.0)
	하	13(54.2)	9(37.5)	2(8.3)	0(0.0)	24(100.0)
전체		82(51.9)	52(32.9)	22(13.9)	2(1.3)	158(100.0)

4)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1.5%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78.1%), 그 외 구의 경우(73.6%), 경제수준이 '중'에 속하는 경우(75.5%),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답했다.

〈표 30〉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2(16.2)	8(10.8)	22(29.7)	32(43.2)	74(100.0)
	2학년	5(11.6)	11(25.6)	18(41.9)	9(20.9)	43(100.0)
	3학년	4(9.8)	5(12.2)	12(29.3)	20(48.8)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0(17.9)	8(14.3)	15(26.8)	23(41.1)	56(100.0)
	그 외	11(10.8)	16(15.7)	37(36.3)	38(37.3)	102(100.0)
경제 수준	상	5(17.9)	6(21.4)	7(25.0)	10(35.7)	28(100.0)
	중	12(11.3)	14(13.2)	41(38.7)	39(36.8)	106(100.0)
	하	4(16.7)	4(16.7)	4(16.7)	12(50.0)	24(100.0)
전체		21(13.3)	24(15.2)	52(32.9)	61(38.6)	158(100.0)

5) 학생 및 학부모가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음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92.4%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5.2%), 강남3구의 경우(98.2%),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100%),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답했다.

〈표 31〉 합격·불합격 기준 및 이유 확인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2.7)	3(4.1)	27(36.5)	42(56.8)	74(100.0)
	2학년	2(4.7)	3(7.0)	23(53.5)	15(34.9)	43(100.0)
	3학년	1(2.4)	1(2.4)	17(41.5)	22(53.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1.8)	0(0.0)	19(33.9)	36(64.3)	56(100.0)
	그 외	4(3.9)	7(6.9)	48(47.1)	43(42.2)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0(0.0)	11(39.3)	17(60.7)	28(100.0)
	중	3(2.8)	6(5.7)	46(43.4)	51(48.1)	106(100.0)
	하	2(8.3)	1(4.2)	10(41.7)	11(45.8)	24(100.0)
전체		5(3.2)	7(4.4)	67(42.4)	79(50.0)	158(100.0)

6) 전형요소의 복잡성으로 인해 계층별 대학 전형 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9.9%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층별로 대학별 전형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2.6%), 강남3구의 경우(96.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2.9%),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은 계층별로 대학별 전형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표 32〉 계층별 대학 전형 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2.7)	6(8.1)	24(32.4)	42(56.8)	74(100.0)
	2학년	2(4.7)	3(7.0)	20(46.5)	18(41.9)	43(100.0)
	3학년	2(4.9)	1(2.4)	14(34.1)	24(58.5)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3.6)	0(0.0)	14(25.0)	40(71.4)	56(100.0)
	그 외	4(3.9)	10(9.8)	44(43.1)	44(43.1)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1(3.6)	8(28.6)	18(64.3)	28(100.0)
	중	3(2.8)	7(6.6)	44(41.5)	52(49.1)	106(100.0)
	하	2(8.3)	2(8.3)	6(25.0)	14(58.3)	24(100.0)
전체		6(3.8)	10(6.3)	58(36.7)	84(53.2)	158(100.0)

7)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8%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0.3%), 강남3구의 경우(94.7%),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6.4%),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 33〉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다른 결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2.7)	6(8.1)	25(33.8)	41(55.4)	74(100.0)
	2학년	0(0.0)	7(16.3)	22(51.2)	14(32.6)	43(100.0)
	3학년	2(4.9)	2(4.9)	15(36.6)	22(53.7)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0(0.0)	3(5.4)	15(26.8)	38(67.9)	56(100.0)
	그 외	4(3.9)	12(11.8)	47(46.1)	39(38.2)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1(3.6)	10(35.7)	17(60.7)	28(100.0)
	중	2(1.9)	10(9.4)	44(41.5)	50(47.2)	106(100.0)
	하	2(8.3)	4(16.7)	8(33.3)	10(41.7)	24(100.0)
전체		4(2.5)	15(9.5)	62(39.3)	77(48.7)	158(100.0)

8) 학생평가 및 대입전형에서의 교사 권한 증가로 인해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 조장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3.4%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4.3%), 강남3구의 경우(87.5%),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5.7%),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고 답했다.

〈표 34〉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 조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5.4)	15(20.3)	19(25.7)	36(48.6)	74(100.0)
	2학년	3(7.0)	12(27.9)	14(32.6)	14(32.6)	43(100.0)
	3학년	2(4.9)	6(14.6)	14(34.1)	19(46.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0(0.0)	7(12.5)	17(30.4)	32(57.1)	56(100.0)
	그 외	9(8.8)	26(25.5)	30(29.4)	37(36.3)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4(14.3)	10(35.7)	14(50.0)	28(100.0)
	중	5(4.7)	23(21.7)	32(30.2)	46(43.4)	106(100.0)
	하	4(16.7)	6(25.0)	5(20.8)	9(37.5)	24(100.0)
전체		9(5.7)	33(20.9)	47(29.7)	69(43.7)	158(100.0)

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

1) 수능전형보다 사교육비 경감에 더 기여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2.3%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수능전형보다 사교육비 경감에 더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2학년 재학생의 경우(86.1%), 강남3구의 경우(89.3%),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2.9%), 높은 비율로 학생부교과전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표 35〉 사교육비 경감 효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7(50.0)	23(31.1)	6(8.1)	8(10.8)	74(100.0)
	2학년	19(44.2)	18(41.9)	6(14.0)	0(0.0)	43(100.0)
	3학년	26(63.4)	7(17.1)	8(19.5)	0(0.0)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38(67.9)	12(21.4)	2(3.6)	4(7.1)	56(100.0)
	그 외	44(43.1)	36(35.3)	18(17.6)	4(3.9)	102(100.0)
경제 수준	상	19(67.9)	7(25.0)	1(3.6)	1(3.6)	28(100.0)
	중	50(47.2)	35(33.0)	15(14.2)	6(5.7)	106(100.0)
	하	13(54.2)	6(25.0)	4(16.7)	1(4.2)	24(100.0)
전체		82(51.9)	48(30.4)	20(12.7)	8(5.0)	158(100.0)

2)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5.3%가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81.1%), 강남3구의 경우(82.1%), 경제수준이 '중'에 속하는 경우(76.4%), 높은 비율로 학생부교과전형의 고교교육 정상화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표 36〉 고교교육 정상화 효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8(51.4)	22(29.7)	13(17.6)	1(1.4)	74(100.0)
	2학년	14(32.6)	16(37.2)	13(30.2)	0(0.0)	43(100.0)
	3학년	18(43.9)	11(26.8)	12(29.3)	0(0.0)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32(57.1)	14(25.0)	9(16.1)	1(1.8)	56(100.0)
	그 외	38(37.3)	35(34.3)	29(28.4)	0(0.0)	102(100.0)
경제 수준	상	14(50.0)	7(25.0)	7(25.0)	0(0.0)	28(100.0)
	중	47(44.3)	34(32.1)	24(22.6)	1(0.9)	106(100.0)
	하	9(37.5)	8(33.3)	7(29.2)	0(0.0)	24(100.0)
전체		70(44.3)	49(31.0)	38(24.1)	1(0.6)	158(100.0)

3) 학생의 노력 및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7.1%가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8.4%), 강남3구의 경우(75%),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71.4%), 높은 비율로 학생부교과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표 37〉 공정한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3(44.6)	25(33.8)	16(21.6)	0(0.0)	74(100.0)
	2학년	6(14.0)	16(37.2)	21(48.8)	0(0.0)	43(100.0)
	3학년	16(39.0)	10(24.4)	15(36.6)	0(0.0)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28(50.0)	14(25.0)	14(25.0)	0(0.0)	56(100.0)
	그 외	27(26.5)	37(36.3)	38(37.3)	0(0.0)	102(100.0)
경제 수준	상	17(60.7)	3(10.7)	8(28.6)	0(0.0)	28(100.0)
	중	32(30.2)	37(34.9)	37(34.9)	0(0.0)	106(100.0)
	하	6(25.0)	11(45.8)	7(29.2)	0(0.0)	24(100.0)
전체		55(34.8)	51(32.3)	52(32.9)	0(0.0)	158(100.0)

4) 내신 사교육비 더욱 증가시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8%가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별 내신 사교육, 전 학년 사교육, 지식위주 사교육 등 내신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특히, 2학년 재학생의 경우(93%), 강남3구의 경우(91.1%),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2.9%), 높은 비율로 학생부교과전형이 내신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표 38〉 내신 사교육비 증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1.4)	7(9.5)	27(36.5)	39(52.7)	74(100.0)
	2학년	0(0.0)	3(7.0)	27(62.8)	13(30.2)	43(100.0)
	3학년	3(7.3)	5(12.2)	12(29.3)	21(51.2)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2(3.6)	3(5.4)	15(26.8)	36(64.3)	56(100.0)
	그 외	2(2.0)	12(11.8)	51(50.0)	37(36.3)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1(3.6)	8(28.6)	18(64.3)	28(100.0)
	중	1(0.9)	10(9.4)	49(46.2)	46(43.4)	106(100.0)
	하	2(8.3)	4(16.7)	9(37.5)	9(37.5)	24(100.0)
전체		4(2.5)	15(9.5)	66(41.8)	73(46.2)	158(100.0)

5) 내신 사교육을 많이 하는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7.2%가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사교육을 많이 하는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5.4%), 강남 3구의 경우(80.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78.5%), 높은 비율로 학생부 교과전형은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답했다.

〈표 39〉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7(9.5)	11(14.9)	31(41.9)	25(33.8)	74(100.0)
	2학년	2(4.7)	10(23.3)	19(44.2)	12(27.9)	43(100.0)
	3학년	0(0.0)	6(14.6)	22(53.7)	13(31.7)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5(8.9)	6(10.7)	24(42.9)	21(37.5)	56(100.0)
	그 외	4(3.9)	21(20.6)	48(47.1)	29(28.4)	102(100.0)
경제 수준	상	3(10.7)	3(10.7)	13(46.4)	9(32.1)	28(100.0)
	중	5(4.7)	18(17.0)	48(45.3)	35(33.0)	106(100.0)
	하	1(4.2)	6(25.0)	11(45.8)	6(25.0)	24(100.0)
전체		9(5.7)	27(17.1)	72(45.6)	50(31.6)	158(100.0)

6) 학생평가 및 대입전형에서의 교사 권한 증가로 인해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 조장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8.9%가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0.5%), 강남3구의 경우(82.1%),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9.3%), 높은 비율로 학생부교과전형이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고 답했다.

〈표 40〉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문화 조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5.4)	18(24.3)	24(32.4)	28(37.8)	74(100.0)
	2학년	3(7.0)	16(37.2)	16(37.2)	8(18.6)	43(100.0)
	3학년	2(4.9)	6(14.6)	16(39.0)	17(41.5)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2(3.6)	8(14.3)	20(35.7)	26(46.4)	56(100.0)
	그 외	7(6.9)	32(31.4)	36(35.3)	27(26.5)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3(10.7)	13(46.4)	12(42.9)	28(100.0)
	중	8(7.5)	29(27.4)	37(34.9)	32(30.2)	106(100.0)
	하	1(4.2)	8(33.3)	6(25.0)	9(37.5)	24(100.0)
전체		9(5.7)	40(25.3)	56(35.4)	53(33.6)	158(100.0)

7)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따라 몰아주기 등으로 인해 3학년에서의 재도전이 어려움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7.2%가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따라 몰아주기 등을 조장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8.3%), 강남3구의 경우(87.5%),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9.3%), 높은 비율로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전형이라고 답했다.

〈표 41〉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재도전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1.4)	15(20.3)	24(32.4)	34(45.9)	74(100.0)
	2학년	0(0.0)	11(25.6)	20(46.5)	12(27.9)	43(100.0)
	3학년	1(2.4)	8(19.5)	9(22.0)	23(56.1)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1(1.8)	6(10.7)	14(25.0)	35(62.5)	56(100.0)
	그 외	1(1.0)	28(27.5)	39(38.2)	34(33.3)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3(10.7)	7(25.0)	18(64.3)	28(100.0)
	중	1(0.9)	23(21.7)	41(38.7)	41(38.7)	106(100.0)
	하	1(4.2)	8(33.3)	5(20.8)	10(41.7)	24(100.0)
전체		2(1.3)	34(21.5)	53(33.5)	69(43.7)	158(100.0)

라.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인식

1) EBS 활용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0.8%가 수능위주전형은 EBS를 활용할 수 있기에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2.9%), 강남3구의 경우(71.5%), 경제수준이 '중'에 속하는 경우(76.1%),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표 42〉 사교육비 경감 효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9(12.2)	11(14.9)	30(40.5)	24(32.4)	74(100.0)
	2학년	9(20.9)	16(37.2)	13(30.2)	5(11.6)	43(100.0)
	3학년	7(17.1)	10(24.4)	14(34.1)	10(24.4)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8(14.3)	8(14.3)	23(41.1)	17(30.4)	56(100.0)
	그 외	17(16.7)	29(28.4)	34(33.3)	22(21.6)	102(100.0)
경제 수준	상	8(28.6)	5(17.9)	9(32.1)	6(21.4)	28(100.0)
	중	11(10.4)	25(23.6)	43(40.6)	27(25.5)	106(100.0)
	하	6(25.0)	7(29.2)	5(20.8)	6(25.0)	24(100.0)
전체		25(15.8)	37(23.4)	57(36.1)	39(24.7)	158(100.0)

2) 학업성취 향상의 증시로 인한 고교교육 정상화 및 책무성 신장 효과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3.3%가 수능위주전형은 학업성취 향상을 증시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와 책무성 신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3%), 강남3구의 경우(71.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67.9%),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의 고교교육 정상화 및 책무성 신장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표 43〉 고교교육 정상화 및 책무성 신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5(6.8)	15(20.3)	23(31.1)	31(41.9)	74(100.0)
	2학년	4(9.3)	19(44.2)	12(27.9)	8(18.6)	43(100.0)
	3학년	6(14.6)	9(22.0)	14(34.1)	12(29.3)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3(5.4)	13(23.2)	18(32.1)	22(39.3)	56(100.0)
	그 외	12(11.8)	30(29.4)	31(30.4)	29(28.4)	102(100.0)
경제 수준	상	3(10.7)	6(21.4)	8(28.6)	11(39.3)	28(100.0)
	중	8(7.5)	28(26.4)	38(35.8)	32(30.2)	106(100.0)
	하	4(16.7)	9(37.5)	3(12.5)	8(33.3)	24(100.0)
전체		15(9.5)	43(27.2)	49(31.0)	51(32.3)	158(100.0)

3) 학생의 노력과 능력 및 객관적인 학업성취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2.3%가 수능위주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 및 객관적인 학업성취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89.2%), 강남3구의 경우(91%),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2.9%),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표 44〉 공정한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4.1)	5(6.8)	25(33.8)	41(55.4)	74(100.0)
	2학년	3(7.0)	9(20.9)	19(44.2)	12(27.9)	43(100.0)
	3학년	3(7.3)	5(12.2)	12(29.3)	21(51.2)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2(3.6)	3(5.4)	19(33.9)	32(57.1)	56(100.0)
	그 외	7(6.9)	16(15.7)	37(36.3)	42(41.2)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1(3.6)	7(25.0)	19(67.9)	28(100.0)
	중	5(4.7)	14(13.2)	42(39.6)	45(42.5)	106(100.0)
	하	3(12.5)	4(16.7)	7(29.2)	10(41.7)	24(100.0)
전체		9(5.7)	19(12.0)	56(35.5)	74(46.8)	158(100.0)

4) 고교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3.4%가 수능위주전형은 고교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전형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9.7%), 강남3구의 경우(78.6%), 경제수준이 '중'에 속하는 경우(76.4%),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은 고교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전형이 아니라고 답했다.

〈표 45〉 고교교육 왜곡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5(47.3)	24(32.4)	12(16.2)	3(4.1)	74(100.0)
	2학년	9(20.9)	19(44.2)	13(30.2)	2(4.7)	43(100.0)
	3학년	13(31.7)	16(39.0)	8(19.5)	4(9.8)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31(55.4)	13(23.2)	10(17.9)	2(3.6)	56(100.0)
	그 외	26(25.5)	46(45.1)	23(22.5)	7(6.9)	102(100.0)
경제 수준	상	12(42.9)	10(35.7)	4(14.3)	2(7.1)	28(100.0)
	중	40(37.7)	41(38.7)	20(18.9)	5(4.7)	106(100.0)
	하	5(20.8)	8(33.3)	9(37.5)	2(8.3)	24(100.0)
전체		57(36.1)	59(37.3)	33(20.9)	9(5.7)	158(100.0)

5)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3.3%가 수능위주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전형이라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2.9%), 그 외 구의 경우(69.6%),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79.1%), 높은 비율로 수능 위주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전형이라고 답했다.

〈표 46〉 국어, 수학, 영어의 영향력이 큰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5(20.3)	22(29.7)	32(43.2)	5(6.8)	74(100.0)
	2학년	4(9.3)	10(23.3)	19(44.2)	10(23.3)	43(100.0)
	3학년	3(7.3)	4(9.8)	28(68.3)	6(14.6)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8(14.3)	19(33.9)	23(41.1)	6(10.7)	56(100.0)
	그 외	14(13.7)	17(16.7)	56(54.9)	15(14.7)	102(100.0)
경제 수준	상	3(10.7)	10(35.7)	12(42.9)	3(10.7)	28(100.0)
	중	17(16.0)	23(21.7)	53(50.0)	13(12.3)	106(100.0)
	하	2(8.3)	3(12.5)	14(58.3)	5(20.8)	24(100.0)
전체		22(13.9)	36(22.8)	79(50.0)	21(13.3)	158(100.0)

6)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3.3%가 수능위주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1.6%)와 강남3구의 경우(71.4%)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경제수준에서는 '상'에 속하는 경우(64.3%)와 '중'에 속하는 경우(64.1%) 유사한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고 답했다.

〈표 47〉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0(40.5)	23(31.1)	18(24.3)	3(4.1)	74(100.0)
	2학년	8(18.6)	13(30.2)	14(32.6)	8(18.6)	43(100.0)
	3학년	16(39.0)	10(24.4)	11(26.8)	4(9.8)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26(46.4)	14(25.0)	13(23.2)	3(5.4)	56(100.0)
	그 외	28(27.5)	32(31.4)	30(29.4)	12(11.8)	102(100.0)
경제 수준	상	10(35.7)	8(28.6)	7(25.0)	3(10.7)	28(100.0)
	중	37(34.9)	31(29.2)	28(26.4)	10(9.4)	106(100.0)
	하	7(29.2)	7(29.2)	8(33.3)	2(8.3)	24(100.0)
전체		54(34.2)	46(29.1)	43(27.2)	15(9.5)	158(100.0)

7) 학생 및 학부모가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음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6.1%가 수능위주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2학년 재학생의 경우(88.3%), 강남3구의 경우(89.3%),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91.7%),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 아니라고 답했다.

〈표 48〉 합격·불합격 기준 및 이유 확인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4(59.5)	18(24.3)	9(12.2)	3(4.1)	74(100.0)
	2학년	21(48.8)	17(39.5)	5(11.6)	0(0.0)	43(100.0)
	3학년	25(61.0)	11(26.8)	2(4.9)	3(7.3)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37(66.1)	13(23.2)	4(7.1)	2(3.6)	56(100.0)
	그 외	53(52.0)	33(32.4)	12(11.8)	4(3.9)	102(100.0)
경제 수준	상	19(67.9)	6(21.4)	1(3.6)	2(7.1)	28(100.0)
	중	58(54.7)	31(29.2)	14(13.2)	3(2.8)	106(100.0)
	하	13(54.2)	9(37.5)	1(4.2)	1(4.2)	24(100.0)
전체		90(57.0)	46(29.1)	16(10.1)	6(3.8)	158(100.0)

8)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9.9%가 수능위주전형은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2.7%), 강남3구의 경우(92.8%),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6.4%), 높은 비율로 수능위주전형은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 아니라고 답했다.

〈표 49〉 부모,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다른 결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7(63.5)	20(27.0)	6(8.1)	1(1.4)	74(100.0)
	2학년	22(51.2)	15(34.9)	4(9.3)	2(4.7)	43(100.0)
	3학년	28(68.3)	10(24.4)	2(4.9)	1(2.4)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40(71.4)	12(21.4)	4(7.1)	0(0.0)	56(100.0)
	그 외	57(55.9)	33(32.4)	8(7.8)	4(3.9)	102(100.0)
경제 수준	상	21(75.0)	6(21.4)	0(0.0)	1(3.6)	28(100.0)
	중	61(57.5)	33(31.1)	10(9.4)	2(1.9)	106(100.0)
	하	15(62.5)	6(25.0)	2(8.3)	1(4.2)	24(100.0)
전체		97(61.4)	45(28.5)	12(7.6)	4(2.5)	158(100.0)

마. 대입제도 전형 유형의 비율에 대한 의견

1) 수시 및 정시 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2.8%가 정시 수능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시 학생부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5%에 불과했다. 반면, 현재 비율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은 10.8%로 가장 낮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81.1%), 강남3구의 경우(8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5.7%) 정시 수능전형 확대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0〉 수시 및 정시 전형 비율

단위: 명(%)

구분		학생부 크게 확대	학생부 더 확대	현행 유지	수능 더 확대	수능 크게 확대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4.1)	5(6.8)	6(8.1)	9(12.2)	51(68.9)	74(100.0)
	2학년	5(11.6)	7(16.3)	7(16.3)	10(23.3)	14(32.6)	43(100.0)
	3학년	3(7.3)	3(7.3)	4(9.8)	6(14.6)	25(61.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1.8)	2(3.6)	6(10.7)	10(17.9)	37(66.1)	56(100.0)
	그 외	10(9.8)	13(12.7)	11(10.8)	15(14.7)	53(52.0)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0(0.0)	3(10.7)	4(14.3)	20(71.4)	28(100.0)
	중	6(5.7)	13(12.3)	10(9.4)	17(16.0)	60(56.6)	106(100.0)
	하	4(16.7)	2(8.3)	4(16.7)	4(16.7)	10(41.7)	24(100.0)
전체		11(7.0)	15(9.5)	17(10.8)	25(15.8)	90(57.0)	158(100.0)

2)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이 17.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확대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8.4%), 강남3구의 경우(76.8%),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79.1%)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축소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1〉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단위: 명(%)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행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6(62.2)	12(16.2)	11(14.9)	4(5.4)	1(1.4)	74(100.0)
	2학년	15(34.9)	12(27.9)	10(23.3)	3(7.0)	3(7.0)	43(100.0)
	3학년	21(51.2)	8(19.5)	6(14.6)	6(14.6)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3(58.9)	10(17.9)	10(17.9)	2(3.6)	1(1.8)	56(100.0)
	그 외	49(48.0)	22(21.6)	17(16.7)	11(10.8)	3(2.9)	102(100.0)
경제 수준	상	16(57.1)	4(14.3)	7(25.0)	0(0.0)	1(3.6)	28(100.0)
	중	52(49.1)	23(21.7)	19(17.9)	11(10.4)	1(0.9)	106(100.0)
	하	14(58.3)	5(20.8)	1(4.2)	2(8.3)	2(8.3)	24(100.0)
전체		82(51.9)	32(20.3)	27(17.1)	13(8.2)	4(2.5)	158(100.0)

3)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이 20.3%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 확대 의견은 7.6%에 불과했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7.1%), 강남3구의 경우(87.5%),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5.7%)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축소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2〉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단위: 명(%)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행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4(59.5)	13(17.6)	11(14.9)	5(6.8)	1(1.4)	74(100.0)
	2학년	16(37.2)	11(25.6)	13(30.2)	2(4.7)	1(2.3)	43(100.0)
	3학년	21(51.2)	9(22.0)	8(19.5)	3(7.3)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1(73.2)	8(14.3)	6(10.7)	1(1.8)	0(0.0)	56(100.0)
	그 외	40(39.2)	25(24.5)	26(25.5)	9(8.8)	2(2.0)	102(100.0)
경제 수준	상	22(78.6)	2(7.1)	1(3.6)	2(7.1)	1(3.6)	28(100.0)
	중	53(50.0)	24(22.6)	22(20.8)	7(6.6)	0(0.0)	106(100.0)
	하	6(25.0)	7(29.2)	9(37.5)	1(4.2)	1(4.2)	24(100.0)
전체		81(51.3)	33(20.9)	32(20.3)	10(6.3)	2(1.3)	158(100.0)

4) 논술위주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다른 전형유형에 비해 근소한 차이이지만, 논술위주전형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이 33.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논술위주전형의 비율 확대 의견은 16.5%에 불과했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56.7%)와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54.2%) 논술위주전형 비율 축소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 논술위주전형 비율

단위: 명(%)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행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2(43.2)	10(13.5)	23(31.1)	5(6.8)	4(5.4)	74(100.0)
	2학년	8(18.6)	8(18.6)	17(39.5)	6(14.0)	4(9.3)	43(100.0)
	3학년	10(24.4)	11(26.8)	13(31.7)	7(17.1)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2(39.3)	6(10.7)	14(25.0)	9(16.1)	5(8.9)	56(100.0)
	그 외	28(27.5)	23(22.5)	39(38.2)	9(8.8)	3(2.9)	102(100.0)
경제 수준	상	15(53.6)	2(7.1)	3(10.7)	5(17.9)	3(10.7)	28(100.0)
	중	29(27.4)	20(18.9)	40(37.7)	12(11.3)	5(4.7)	106(100.0)
	하	6(25.0)	7(29.2)	10(41.7)	1(4.2)	0(0.0)	24(100.0)
전체		50(31.6)	29(18.4)	53(33.5)	18(11.4)	8(5.1)	158(100.0)

5) 실기/실적위주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실기/실적위주전형은 다른 전형유형에 비해 근소한 차이이지만, 현행 유지 의견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비율 축소 의견이 36.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비율 확대 의견은 19.6%에 불과했다.

〈표 54〉 실기/실적위주전형 비율

단위: 명(%)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행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5(33.8)	7(9.5)	28(37.8)	12(16.2)	2(2.7)	74(100.0)
	2학년	2(4.7)	8(18.6)	21(48.8)	8(18.6)	4(9.3)	43(100.0)
	3학년	10(24.4)	6(14.6)	20(48.8)	4(9.8)	1(2.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0(35.7)	5(8.9)	25(44.6)	5(8.9)	1(1.8)	56(100.0)
	그 외	17(16.7)	16(15.7)	44(43.1)	19(18.6)	6(5.9)	102(100.0)
경제 수준	상	9(32.1)	3(10.7)	13(46.4)	3(10.7)	0(0.0)	28(100.0)
	중	25(23.6)	13(12.3)	45(42.5)	18(17.0)	5(4.7)	106(100.0)
	하	3(12.5)	5(20.8)	11(45.8)	3(12.5)	2(8.3)	24(100.0)
전체		37(23.4)	21(13.3)	69(43.7)	24(15.2)	7(4.4)	158(100.0)

6)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이 19.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축소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8.4%), 강남3구의 경우(87.5%),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9.3%)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5〉 수능위주전형 비율

단위: 명(%)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행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2.7)	3(4.1)	11(14.9)	7(9.5)	51(68.9)	74(100.0)
	2학년	0(0.0)	3(7.0)	12(27.9)	8(18.6)	20(46.5)	43(100.0)
	3학년	0(0.0)	2(4.9)	8(19.5)	6(14.6)	25(61.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0(0.0)	1(1.8)	6(10.7)	6(10.7)	43(76.8)	56(100.0)
	그 외	2(2.0)	7(6.9)	25(24.5)	15(14.7)	53(52.0)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0(0.0)	2(7.1)	3(10.7)	22(78.6)	28(100.0)
	중	0(0.0)	7(6.6)	20(18.9)	16(15.1)	63(59.4)	106(100.0)
	하	1(4.2)	1(4.2)	9(37.5)	2(8.3)	11(45.8)	24(100.0)
전체		2(1.3)	8(5.1)	31(19.6)	21(13.3)	96(60.8)	158(100.0)

7)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은 79.1%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2.9%), 강남3구의 경우(85.7%),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5.7%)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6〉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단위: 명(%)

구분		필요	불필요	대학 자율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58(78.4)	9(12.2)	7(9.5)	74(100.0)
	2학년	33(76.7)	5(11.6)	5(11.6)	43(100.0)
	3학년	34(82.9)	3(7.3)	4(9.8)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48(85.7)	4(7.1)	4(7.1)	56(100.0)
	그 외	77(75.5)	13(12.7)	12(11.8)	102(100.0)
경제 수준	상	24(85.7)	3(10.7)	1(3.6)	28(100.0)
	중	82(77.4)	11(10.4)	13(12.3)	106(100.0)
	하	19(79.2)	3(12.5)	2(8.3)	24(100.0)
전체		125(79.1)	17(10.8)	16(10.1)	158(100.0)

8)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은 82.3%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90.2%), 강남3구의 경우(91.1%),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9.3%)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7〉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단위: 명(%)

구분		필요	불필요	대학 자율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58(78.4)	10(13.5)	6(8.1)	74(100.0)
	2학년	35(81.4)	3(7.0)	5(11.6)	43(100.0)
	3학년	37(90.2)	2(4.9)	2(4.9)	41(100.0)
거주지	강남 3구	51(91.1)	3(5.4)	2(3.6)	56(100.0)
	그 외	79(77.5)	12(11.8)	11(10.8)	102(100.0)
경제 수준	상	25(89.3)	3(10.7)	0(0.0)	28(100.0)
	중	86(81.1)	9(8.5)	11(10.4)	106(100.0)
	하	19(79.2)	3(12.5)	2(8.3)	24(100.0)
전체		130(82.3)	15(9.5)	13(8.2)	158(100.0)

바. 대입제도 전형유형의 개념 규정 방법에 대한 의견

1)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 규정 (현행: 학생부 교과 성적 50% 이상 반영)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을 현행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49.4%로 나타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2%로 나타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5.8%로 나타났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22.8%로 나타났다.

〈표 58〉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 규정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70% 이상	90% 이상	100%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5(47.3)	10(13.5)	11(14.9)	18(24.3)	74(100.0)
	2학년	29(67.4)	5(11.6)	5(11.6)	4(9.3)	43(100.0)
	3학년	14(34.1)	4(9.8)	9(22.0)	14(34.1)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6(46.4)	6(10.7)	12(21.4)	12(21.4)	56(100.0)
	그 외	52(51.0)	13(12.7)	13(12.7)	24(23.5)	102(100.0)
경제 수준	상	12(42.9)	1(3.6)	6(21.4)	9(32.1)	28(100.0)
	중	55(51.9)	16(15.1)	18(17.0)	17(16.0)	106(100.0)
	하	11(45.8)	2(8.3)	1(4.2)	10(41.7)	24(100.0)
전체		78(49.4)	19(12.0)	25(15.8)	36(22.8)	158(100.0)

2) 수능위주전형의 개념 규정 (현행: 수능 성적 50% 이상 반영)

수능위주전형의 개념을 현행처럼 ‘수능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1.5%로 나타났고, ‘수능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6.5%로 나타났고, ‘수능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5.8%로 나타났으며, ‘수능 성적을 100%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46.2%로 나타났다.

〈표 59〉 수능위주전형의 개념 규정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70% 이상	90% 이상	100%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2(16.2)	12(16.2)	10(13.5)	40(54.1)	74(100.0)
	2학년	16(37.2)	7(16.3)	9(20.9)	11(25.6)	43(100.0)
	3학년	6(14.6)	7(17.1)	6(14.6)	22(53.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5.4)	9(16.1)	11(19.6)	33(58.9)	56(100.0)
	그 외	31(30.4)	17(16.7)	14(13.7)	40(39.2)	102(100.0)
경제 수준	상	2(7.1)	3(10.7)	4(14.3)	19(67.9)	28(100.0)
	중	26(24.5)	16(15.1)	20(18.9)	44(41.5)	106(100.0)
	하	6(25.0)	7(29.2)	1(4.2)	10(41.7)	24(100.0)
전체		34(21.5)	26(16.5)	25(15.8)	73(46.2)	158(100.0)

3) 논술위주전형의 개념 규정 (현행: 논술 성적 50% 이상 반영)

논술위주전형의 개념을 현행처럼 ‘논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54.4%로 나타났고, ‘논술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2.7%로 나타났고, ‘논술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4.6%로 나타났으며, ‘논술 성적을 100%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8.4%로 나타났다.

〈표 60〉 논술위주전형의 개념 규정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70% 이상	90% 이상	100%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4(59.5)	10(13.5)	5(6.8)	15(20.3)	74(100.0)
	2학년	24(55.8)	7(16.3)	7(16.3)	5(11.6)	43(100.0)
	3학년	18(43.9)	3(7.3)	11(26.8)	9(22.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7(48.2)	9(16.1)	8(14.3)	12(21.4)	56(100.0)
	그 외	59(57.8)	11(10.8)	15(14.7)	17(16.7)	102(100.0)
경제 수준	상	13(46.4)	1(3.6)	4(14.3)	10(35.7)	28(100.0)
	중	59(55.7)	17(16.0)	13(12.3)	17(16.0)	106(100.0)
	하	14(58.3)	2(8.3)	6(25.0)	2(8.3)	24(100.0)
전체		86(54.4)	20(12.7)	23(14.6)	29(18.4)	158(100.0)

2. 대입제도 개편 요구 조사 결과

가. 전반적인 대입제도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1)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55.1%가 대입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등 공통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64.8%), 강남3구의 경우(73.2%),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71.4%), 높은 비율로 대입전형은 공통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표 61〉 공통필수과목 중심의 구성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5.4)	6(8.1)	16(21.6)	22(29.7)	26(35.1)	74(100.0)
	2학년	5(11.6)	13(30.2)	6(14.0)	12(27.9)	7(16.3)	43(100.0)
	3학년	10(24.4)	6(14.6)	5(12.2)	11(26.8)	9(22.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3.6)	2(3.6)	11(19.6)	23(41.1)	18(32.1)	56(100.0)
	그 외	17(16.7)	23(22.5)	16(15.7)	22(21.6)	24(23.5)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2(7.1)	5(17.9)	9(32.1)	11(39.3)	28(100.0)
	중	10(9.4)	17(16.0)	19(17.9)	31(29.2)	29(27.4)	106(100.0)
	하	8(33.3)	6(25.0)	3(12.5)	5(20.8)	2(8.3)	24(100.0)
전체		19(12.0)	25(15.8)	27(17.1)	45(28.5)	42(26.6)	158(100.0)

2) 전공진로(모집단위)에 따라 반영과목을 달리 하여 적격자를 선발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46.9%가 대입전형은 국영수 위주보다는 전공진로(모집단위)에 따라 반영과목을 달리 하여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2학년 재학생의 경우(58.2%), 그 외 구의 경우(52%),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66.7%), 높은 비율로 대입전형은 전공진로(모집단위)에 따라 반영과목을 달리 하여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 62〉 전공진로에 따라 다른 반영과목으로 선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5(20.3)	9(12.2)	20(27.0)	21(28.4)	9(12.2)	74(100.0)
	2학년	3(7.0)	12(27.9)	3(7.0)	15(34.9)	10(23.3)	43(100.0)
	3학년	10(24.4)	9(22.0)	3(7.3)	9(22.0)	10(24.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3(23.2)	11(19.6)	11(19.6)	12(21.4)	9(16.1)	56(100.0)
	그 외	15(14.7)	19(18.6)	15(14.7)	33(32.4)	20(19.6)	102(100.0)
경제 수준	상	10(35.7)	7(25.0)	5(17.9)	3(10.7)	3(10.7)	28(100.0)
	중	16(15.1)	20(18.9)	18(17.0)	36(34.0)	16(15.1)	106(100.0)
	하	2(8.3)	3(12.5)	3(12.5)	6(25.0)	10(41.7)	24(100.0)
전체		28(17.7)	30(19.0)	26(16.5)	45(28.5)	29(18.4)	158(100.0)

3)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입학사정관이 주관적 정성평가로 학생 선발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2.8%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교사의 평가기록, 수능 성적, 면접 점수를 종합하여 주관적 정성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면 안된다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7.8%), 강남 3구의 경우(78.6%),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2.8%), 해당 의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3〉 입학사정관이 주관적 정성평가로 선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0(54.1)	14(18.9)	13(17.6)	6(8.1)	1(1.4)	74(100.0)
	2학년	11(25.6)	14(32.6)	4(9.3)	9(20.9)	5(11.6)	43(100.0)
	3학년	29(70.7)	7(17.1)	2(4.9)	3(7.3)	0(0.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6(64.3)	8(14.3)	6(10.7)	4(7.1)	2(3.6)	56(100.0)
	그 외	44(43.1)	27(26.5)	13(12.7)	14(13.7)	4(3.9)	102(100.0)
경제 수준	상	23(82.1)	3(10.7)	2(7.1)	0(0.0)	0(0.0)	28(100.0)
	중	46(43.4)	25(23.6)	16(15.1)	14(13.2)	5(4.7)	106(100.0)
	하	11(45.8)	7(29.2)	1(4.2)	4(16.7)	1(4.2)	24(100.0)
전체		80(50.6)	35(22.2)	19(12.0)	18(11.4)	6(3.8)	158(100.0)

4) 7월에 수능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7월에 수능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시용 수능을 1회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위주전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5.6%로 그 반대 의견보다 3.2% 더 높았다.

〈표 64〉 7월 수시용 수능 시행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8(24.3)	13(17.6)	8(10.8)	16(21.6)	19(25.7)	74(100.0)
	2학년	8(18.6)	12(27.9)	5(11.6)	8(18.6)	10(23.3)	43(100.0)
	3학년	7(17.1)	9(22.0)	6(14.6)	6(14.6)	13(31.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3(23.2)	10(17.9)	7(12.5)	12(21.4)	14(25.0)	56(100.0)
	그 외	20(19.6)	24(23.5)	12(11.8)	18(17.6)	28(27.5)	102(100.0)
경제 수준	상	9(32.1)	5(17.9)	3(10.7)	2(7.1)	9(32.1)	28(100.0)
	중	19(17.9)	24(22.6)	15(14.2)	24(22.6)	24(22.6)	106(100.0)
	하	5(20.8)	5(20.8)	1(4.2)	4(16.7)	9(37.5)	24(100.0)
전체		33(20.9)	34(21.5)	19(12.0)	30(19.0)	42(26.6)	158(100.0)

5)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을 허용해야 함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수시 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그 반대 의견보다 1.9% 더 낮았다.

〈표 65〉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허용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9(25.7)	14(18.9)	10(13.5)	18(24.3)	13(17.6)	74(100.0)
	2학년	6(14.0)	16(37.2)	2(4.7)	9(20.9)	10(23.3)	43(100.0)
	3학년	13(31.7)	6(14.6)	1(2.4)	9(22.0)	12(29.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7(30.4)	12(21.4)	2(3.6)	11(19.6)	14(25.0)	56(100.0)
	그 외	21(20.6)	24(23.5)	11(10.8)	25(24.5)	21(20.6)	102(100.0)
경제 수준	상	11(39.3)	4(14.3)	0(0.0)	7(25.0)	6(21.4)	28(100.0)
	중	24(22.6)	29(27.4)	12(11.3)	23(21.7)	18(17.0)	106(100.0)
	하	3(12.5)	3(12.5)	1(4.2)	6(25.0)	11(45.8)	24(100.0)
전체		38(24.1)	36(22.8)	13(8.2)	36(22.8)	35(22.2)	158(100.0)

6) 각 전형유형의 결과를 지역별, 고교유형별, 소득분위별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5.8%가 모든 대학이 각 전형유형의 전형결과를 지역별, 고교유형별, 소득분위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68.9%), 그 외 구의 경우(67.7%), 경제수준이 '중'에 속하는 경우(69.8%), 높은 비율로 모든 대학이 각 전형유형의 전형결과를 지역별, 고교유형별, 소득분위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 66〉 각 전형유형의 결과 공개 법제화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8(10.8)	10(13.5)	5(6.8)	22(29.7)	29(39.2)	74(100.0)
	2학년	2(4.7)	7(16.3)	7(16.3)	13(30.2)	14(32.6)	43(100.0)
	3학년	3(7.3)	7(17.1)	5(12.2)	7(17.1)	19(46.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6(10.7)	11(19.6)	4(7.1)	15(26.8)	20(35.7)	56(100.0)
	그 외	7(6.9)	13(12.7)	13(12.7)	27(26.5)	42(41.2)	102(100.0)
경제 수준	상	3(10.7)	6(21.4)	5(17.9)	3(10.7)	11(39.3)	28(100.0)
	중	7(6.6)	17(16.0)	8(7.5)	36(34.0)	38(35.8)	106(100.0)
	하	3(12.5)	1(4.2)	4(16.7)	3(12.5)	13(54.2)	24(100.0)
전체		13(8.2)	24(15.2)	17(10.8)	42(26.6)	62(39.2)	158(100.0)

나. 학생부위주전형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1)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7.1%가 '학생의 교과성적, 비교과, 교사의 평가기록,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였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4.4%), 강남3구의 경우(82.2%),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2.1%),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반대하였다.

〈표 67〉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4(59.5)	11(14.9)	15(20.3)	3(4.1)	1(1.4)	74(100.0)
	2학년	14(32.6)	9(20.9)	8(18.6)	7(16.3)	5(11.6)	43(100.0)
	3학년	23(56.1)	5(12.2)	7(17.1)	5(12.2)	1(2.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8(67.9)	8(14.3)	8(14.3)	2(3.6)	0(0.0)	56(100.0)
	그 외	43(42.2)	17(16.7)	22(21.6)	13(12.7)	7(6.9)	102(100.0)
경제 수준	상	21(75.0)	2(7.1)	4(14.3)	0(0.0)	1(3.6)	28(100.0)
	중	48(45.3)	19(17.9)	24(22.6)	13(12.3)	2(1.9)	106(100.0)
	하	12(50.0)	4(16.7)	2(8.3)	2(8.3)	4(16.7)	24(100.0)
전체		81(51.3)	25(15.8)	30(19.0)	15(9.5)	7(4.4)	158(100.0)

2)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4%가 학생의 교과성적, 비교과, 교사의 평가기록,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0.3%), 강남3구의 경우(80.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75%),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표 68〉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또는 축소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4.1)	4(5.4)	15(20.3)	13(17.6)	39(52.7)	74(100.0)
	2학년	3(7.0)	13(30.2)	5(11.6)	11(25.6)	11(25.6)	43(100.0)
	3학년	4(9.8)	5(12.2)	5(12.2)	5(12.2)	22(53.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1.8)	2(3.6)	8(14.3)	10(17.9)	35(62.5)	56(100.0)
	그 외	9(8.8)	20(19.6)	17(16.7)	19(18.6)	37(36.3)	102(100.0)
경제 수준	상	2(7.1)	1(3.6)	4(14.3)	5(17.9)	16(57.1)	28(100.0)
	중	3(2.8)	16(15.1)	19(17.9)	21(19.8)	47(44.3)	106(100.0)
	하	5(20.8)	5(20.8)	2(8.3)	3(12.5)	9(37.5)	24(100.0)
전체		10(6.3)	22(13.9)	25(15.8)	29(18.4)	72(45.6)	158(100.0)

3) 국제 바칼로레아(IB) 점수 및 평가 결과를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0.9%가 ‘국제 바칼로레아(IB) 점수와 평가결과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5.4%), 강남3구의 경우(78.6%),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2.2%),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반대하였다.

〈표 69〉 국제 바칼로레아 점수 및 평가 결과 반영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2(56.8)	9(12.2)	20(27.0)	3(4.1)	0(0.0)	74(100.0)
	2학년	14(32.6)	12(27.9)	9(20.9)	7(16.3)	1(2.3)	43(100.0)
	3학년	28(68.3)	7(17.1)	2(4.9)	3(7.3)	1(2.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7(66.1)	7(12.5)	7(12.5)	5(8.9)	0(0.0)	56(100.0)
	그 외	47(46.1)	21(20.6)	24(23.5)	8(7.8)	2(2.0)	102(100.0)
경제 수준	상	19(67.9)	4(14.3)	3(10.7)	1(3.6)	1(3.6)	28(100.0)
	중	51(48.1)	20(18.9)	25(23.6)	9(8.5)	1(0.9)	106(100.0)
	하	14(58.3)	4(16.7)	3(12.5)	3(12.5)	0(0.0)	24(100.0)
전체		84(53.2)	28(17.7)	31(19.6)	13(8.2)	2(1.3)	158(100.0)

4) 모든 학교의 내신등급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역균형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해야 함

‘모든 학교의 내신등급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역균형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부의 내신교과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64.6%가 반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68.3%), 강남3구의 경우(80.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2.2%),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반대하였다.

〈표 70〉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9(52.7)	10(13.5)	15(20.3)	6(8.1)	4(5.4)	74(100.0)
	2학년	9(20.9)	16(37.2)	8(18.6)	8(18.6)	2(4.7)	43(100.0)
	3학년	21(51.2)	7(17.1)	5(12.2)	5(12.2)	3(7.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7(66.1)	8(14.3)	5(8.9)	6(10.7)	0(0.0)	56(100.0)
	그 외	32(31.4)	25(24.5)	23(22.5)	13(12.7)	9(8.8)	102(100.0)
경제 수준	상	19(67.9)	4(14.3)	2(7.1)	2(7.1)	1(3.6)	28(100.0)
	중	44(41.5)	23(21.7)	22(20.8)	12(11.3)	5(4.7)	106(100.0)
	하	6(25.0)	6(25.0)	4(16.7)	5(20.8)	3(12.5)	24(100.0)
전체		69(43.7)	33(20.9)	28(17.7)	19(12.0)	9(5.7)	158(100.0)

5) 학생부의 내신 교과 성적 산정 방법은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로 변경해야 함

‘학생부의 내신교과성적 산정 방법은 현행 일부 상대평가등급제, 일부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 병행 방식에서,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46.2%가 찬성하였으며, 32.3%가 반대하였다.

〈표 71〉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 적용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6(21.6)	8(10.8)	16(21.6)	14(18.9)	20(27.0)	74(100.0)
	2학년	6(14.0)	11(25.6)	10(23.3)	11(25.6)	5(11.6)	43(100.0)
	3학년	6(14.6)	4(9.8)	8(19.5)	12(29.3)	11(26.8)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4(25.0)	7(12.5)	8(14.3)	14(25.0)	13(23.2)	56(100.0)
	그 외	14(13.7)	16(15.7)	26(25.5)	23(22.5)	23(22.5)	102(100.0)
경제 수준	상	9(32.1)	5(17.9)	2(7.1)	5(17.9)	7(25.0)	28(100.0)
	중	17(16.0)	15(14.2)	28(26.4)	26(24.5)	20(18.9)	106(100.0)
	하	2(8.3)	3(12.5)	4(16.7)	6(25.0)	9(37.5)	24(100.0)
전체		28(17.7)	23(14.6)	34(21.5)	37(23.4)	36(22.8)	158(100.0)

6) 고3 7월 수능시험 시행 후, 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 점수 대체 및 수시 학생
부종합전형에서 변경된 점수 사용 허용

‘고3 7월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의 해당 교과점수를 대체 (경신)하도록 허용하여 수시 학생부전형에서도 변경된 점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 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53.2%가 찬성하였으며, 29.8%가 반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 (56.1%), 강남3구의 경우(53.6%),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62.5%),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찬성하였다.

〈표 72〉 7월 수능 점수로 내신 점수 대체 및 수시전형에서 사용 허용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0(13.5)	7(9.5)	19(25.7)	16(21.6)	22(29.7)	74(100.0)
	2학년	6(14.0)	10(23.3)	4(9.3)	11(25.6)	12(27.9)	43(100.0)
	3학년	11(26.8)	3(7.3)	4(9.8)	11(26.8)	12(29.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1(19.6)	6(10.7)	9(16.1)	13(23.2)	17(30.4)	56(100.0)
	그 외	16(15.7)	14(13.7)	18(17.6)	25(24.5)	29(28.4)	102(100.0)
경제 수준	상	7(25.0)	4(14.3)	4(14.3)	5(17.9)	8(28.6)	28(100.0)
	중	16(15.1)	12(11.3)	22(20.8)	29(27.4)	27(25.5)	106(100.0)
	하	4(16.7)	4(16.7)	1(4.2)	4(16.7)	11(45.8)	24(100.0)
전체		27(17.1)	30(12.7)	27(17.1)	38(24.1)	46(29.1)	158(100.0)

7)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 공개 및 공개된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80.4%가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을 대학의 모집요강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개된 전형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81.1%), 강남3구의 경우(83.9%),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87.5%), 높은 비율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을 대학의 모집요강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개된 전형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 73〉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 공개 및 평가 법제화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0(0.0)	3(4.1)	11(14.9)	21(28.4)	39(52.7)	74(100.0)
	2학년	0(0.0)	3(7.0)	6(14.0)	20(46.5)	14(32.6)	43(100.0)
	3학년	1(2.4)	3(7.3)	4(9.8)	13(31.7)	20(48.8)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0(0.0)	4(7.1)	5(8.9)	20(35.7)	27(48.2)	56(100.0)
	그 외	1(1.0)	5(4.9)	16(15.7)	34(33.3)	46(45.1)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3(10.7)	3(10.7)	8(28.6)	14(50.0)	28(100.0)
	중	1(0.9)	5(4.7)	16(15.1)	41(38.7)	43(40.6)	106(100.0)
	하	0(0.0)	1(4.2)	2(8.3)	5(20.8)	16(66.7)	24(100.0)
전체		1(0.6)	9(5.7)	21(13.3)	54(34.2)	73(46.2)	158(100.0)

다. 수능위주전형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1) 7월 수시용 수능 및 11월 정시용 수능으로 두 번 응시하도록 해야 함

‘수능은 3학년 1학기 말(7월)과 2학기 말(11월)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7월 수능은 수시용, 11월 수능은 정시용으로 분리하여 활용하면 난이도 문제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 가능)’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49.4%가 찬성하였으며, 32.3%가 반대하였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51.4%), 강남3구의 경우(53.6%),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58.3%),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찬성하였다.

〈표 74〉 7월 수시용 수능 및 11월 정시용 수능 응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9(12.2)	11(14.9)	16(21.6)	17(23.0)	21(28.4)	74(100.0)
	2학년	8(18.6)	10(23.3)	5(11.6)	11(25.6)	9(20.9)	43(100.0)
	3학년	9(22.0)	4(9.8)	8(19.5)	7(17.1)	13(31.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8(14.3)	7(12.5)	11(19.6)	15(26.8)	15(26.8)	56(100.0)
	그 외	18(17.6)	18(17.6)	18(17.6)	20(19.6)	28(27.5)	102(100.0)
경제 수준	상	7(25.0)	3(10.7)	5(17.9)	5(17.9)	8(28.6)	28(100.0)
	중	16(15.1)	17(16.0)	22(20.8)	25(23.6)	26(24.5)	106(100.0)
	하	3(12.5)	5(20.8)	2(8.3)	5(20.8)	9(37.5)	24(100.0)
전체		26(16.5)	25(15.8)	29(18.4)	35(22.2)	43(27.2)	158(100.0)

2) 객관적인 학업성취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수능전형을 현행 비율보다 확대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4.1%가 객관적인 학업성취(수능 점수)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수능전형을 현행 비율(2023학년도 20.0%, 2024학년도 19.3%)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0.5%), 강남3구의 경우(85.8%),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9.3%), 높은 비율로 정시 수능전형을 현행 비율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 75〉 정시 수능전형 비율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2.7)	3(4.1)	11(14.9)	10(13.5)	48(64.9)	74(100.0)
	2학년	0(0.0)	8(18.6)	9(20.9)	8(18.6)	18(41.9)	43(100.0)
	3학년	0(0.0)	5(12.2)	3(7.3)	8(19.5)	25(61.0)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0(0.0)	3(5.4)	5(8.9)	10(17.9)	38(67.9)	56(100.0)
	그 외	2(2.0)	13(12.7)	18(17.6)	16(15.7)	53(52.0)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0(0.0)	2(7.1)	3(10.7)	22(78.6)	28(100.0)
	중	1(0.9)	12(11.3)	15(14.2)	20(18.9)	58(54.7)	106(100.0)
	하	0(0.0)	4(16.7)	6(25.0)	3(12.5)	11(45.8)	24(100.0)
전체		2(1.3)	16(10.1)	23(14.6)	26(16.5)	91(57.6)	158(100.0)

3) 수능점수를 100% 반영하여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0.9%가 국가수준공통시험인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여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수능전형으로 50% 선발 법제화'에 대해 1학년 재학생의 경우(75.7%), 강남3구의 경우(84%),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85.7%)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6〉 수능 전형으로 50% 선발 법제화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1.4)	3(4.1)	14(18.9)	13(17.6)	43(58.1)	74(100.0)
	2학년	4(9.3)	4(9.3)	10(23.3)	8(18.6)	17(39.5)	43(100.0)
	3학년	3(7.3)	5(12.2)	2(4.9)	7(17.1)	24(58.5)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0(0.0)	3(5.4)	6(10.7)	9(16.1)	38(67.9)	56(100.0)
	그 외	8(7.8)	9(8.8)	20(19.6)	19(18.6)	46(45.1)	102(100.0)
경제 수준	상	1(3.6)	0(0.0)	3(10.7)	3(10.7)	21(75.0)	28(100.0)
	중	3(2.8)	10(9.4)	18(17.0)	22(20.8)	53(50.0)	106(100.0)
	하	4(16.7)	2(8.3)	5(20.8)	3(12.5)	10(41.7)	24(100.0)
전체		8(5.1)	12(7.6)	26(16.5)	28(17.7)	84(53.2)	158(100.0)

4) 수능 시험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야 함

‘수능 시험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59.5%가 반대하였으며, 24%가 찬성하였다.

〈표 77〉 수능시험에 논술형 문항 도입 및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5(47.3)	12(16.2)	16(21.6)	7(9.5)	4(5.4)	74(100.0)
	2학년	14(32.6)	11(25.6)	5(11.6)	7(16.3)	6(14.0)	43(100.0)
	3학년	13(31.7)	9(22.0)	5(12.2)	11(26.8)	3(7.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2(39.3)	8(14.3)	12(21.4)	8(14.3)	6(10.7)	56(100.0)
	그 외	40(39.2)	24(23.5)	14(13.7)	17(16.7)	7(6.9)	102(100.0)
경제 수준	상	14(50.0)	4(14.3)	5(17.9)	2(7.1)	3(10.7)	28(100.0)
	중	39(36.8)	26(24.5)	18(17.0)	15(14.2)	8(7.5)	106(100.0)
	하	9(37.5)	2(8.3)	3(12.5)	8(33.3)	2(8.3)	24(100.0)
전체		62(39.2)	32(20.3)	26(16.5)	25(15.8)	13(8.2)	158(100.0)

5)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능 시험의 변별력 및 영향력 약화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0.9%가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능시험의 변별력과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2.9%), 강남3구의 경우(76.8%),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6.5%),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반대하였다.

〈표 78〉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8(51.4)	11(14.9)	17(23.0)	5(6.8)	3(4.1)	74(100.0)
	2학년	16(37.2)	13(30.2)	6(14.0)	6(14.0)	2(4.7)	43(100.0)
	3학년	26(63.4)	8(19.5)	4(9.8)	1(2.4)	2(4.9)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35(62.5)	8(14.3)	8(14.3)	3(5.4)	2(3.6)	56(100.0)
	그 외	45(44.1)	24(23.5)	19(18.6)	9(8.8)	5(4.9)	102(100.0)
경제 수준	상	22(78.6)	5(17.9)	1(3.6)	0(0.0)	0(0.0)	28(100.0)
	중	48(45.3)	20(18.9)	22(20.8)	11(10.4)	5(4.7)	106(100.0)
	하	10(41.7)	7(29.2)	4(16.7)	1(4.2)	2(8.3)	24(100.0)
전체		80(50.6)	32(20.3)	27(17.1)	12(7.6)	7(4.4)	158(100.0)

6)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수능시험의 영향력 및 변별력을 없애고 학생부전형 위주로 선발해야 함

‘수능 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대학 진학 자격 여부만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시험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사실상 없애고, 대학은 수시 학생부전형을 위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6.6%가 반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87.8%), 강남3구의 경우(87.5%),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96.4%),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반대하였다.

〈표 79〉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학생부전형 위주로 선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49(66.2)	7(9.5)	12(16.2)	6(8.1)	0(0.0)	74(100.0)
	2학년	19(44.2)	10(23.3)	7(16.3)	5(11.6)	2(4.7)	43(100.0)
	3학년	29(70.7)	7(17.1)	2(4.9)	2(4.9)	1(2.4)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44(78.6)	5(8.9)	5(8.9)	2(3.6)	0(0.0)	56(100.0)
	그 외	53(52.0)	19(18.6)	16(15.7)	11(10.8)	3(2.9)	102(100.0)
경제 수준	상	27(96.4)	0(0.0)	1(3.6)	0(0.0)	0(0.0)	28(100.0)
	중	56(52.8)	18(17.0)	18(17.0)	12(11.3)	2(1.9)	106(100.0)
	하	14(58.3)	6(25.0)	2(8.3)	1(4.2)	1(4.2)	24(100.0)
전체		97(61.4)	24(15.2)	21(13.3)	13(8.2)	3(1.9)	158(100.0)

7) 수능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국, 영, 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제한

‘수능 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국, 영, 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48.1%가 반대하였으며, 34.2%가 찬성하였다.

〈표 80〉 수능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제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4(18.9)	17(23.0)	18(24.3)	11(14.9)	14(18.9)	74(100.0)
	2학년	6(14.0)	15(34.9)	6(14.0)	12(27.9)	4(9.3)	43(100.0)
	3학년	16(39.0)	8(19.5)	4(9.8)	5(12.2)	8(19.5)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4(25.0)	11(19.6)	10(17.9)	9(16.1)	12(21.4)	56(100.0)
	그 외	22(21.6)	29(28.4)	18(17.6)	19(18.6)	14(13.7)	102(100.0)
경제 수준	상	10(35.7)	5(17.9)	4(14.3)	2(7.1)	7(25.0)	28(100.0)
	중	17(16.0)	27(25.5)	21(19.8)	23(21.7)	18(17.0)	106(100.0)
	하	9(37.5)	8(33.3)	3(12.5)	3(12.5)	1(4.2)	24(100.0)
전체		36(22.8)	40(25.3)	28(17.7)	28(17.7)	26(16.5)	158(100.0)

8)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모집계열별로 반영 과목을 차별화해야 함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을 지금보다 일부 확대하고 대학 모집계열별로 반영과목을 차별화(특성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수능전형으로도 진로맞춤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46.9%가 찬성하였으며, 34.2%가 반대하였다.

〈표 81〉 수능시험의 선택과목 확대 및 모집계열별 반영 과목 차별화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5(20.3)	4(5.4)	20(27.0)	21(28.4)	14(18.9)	74(100.0)
	2학년	6(14.0)	11(25.6)	7(16.3)	13(30.2)	6(14.0)	43(100.0)
	3학년	14(34.1)	4(9.8)	3(7.3)	8(19.5)	12(29.3)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19(33.9)	6(10.7)	9(16.1)	14(25.0)	8(14.3)	56(100.0)
	그 외	16(15.7)	13(12.7)	21(20.6)	28(27.5)	24(23.5)	102(100.0)
경제 수준	상	10(35.7)	2(7.1)	7(25.0)	5(17.9)	4(14.3)	28(100.0)
	중	24(22.6)	12(11.3)	20(18.9)	31(29.2)	19(17.9)	106(100.0)
	하	1(4.2)	5(20.8)	3(12.5)	6(25.0)	9(37.5)	24(100.0)
전체		35(22.2)	19(12.0)	30(19.0)	42(26.6)	32(20.3)	158(100.0)

9)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해야 함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76.6%가 학생들에게 더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하여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한다고 보았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79.8%)와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87.5%) 높은 비율로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한다고 답했다.

〈표 82〉 정시 지원기회를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4.1)	1(1.4)	11(14.9)	19(25.7)	40(54.1)	74(100.0)
	2학년	0(0.0)	4(9.3)	7(16.3)	16(37.2)	16(37.2)	43(100.0)
	3학년	2(4.9)	5(12.2)	4(9.8)	8(19.5)	22(53.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3.6)	3(5.4)	8(14.3)	12(21.4)	31(55.4)	56(100.0)
	그 외	3(2.9)	7(6.9)	14(13.7)	31(30.4)	47(46.1)	102(100.0)
경제 수준	상	0(0.0)	2(7.1)	3(10.7)	2(7.1)	21(75.0)	28(100.0)
	중	5(4.7)	5(4.7)	19(17.9)	33(31.1)	44(41.5)	106(100.0)
	하	0(0.0)	3(12.5)	0(0.0)	8(33.3)	13(54.2)	24(100.0)
전체		5(3.2)	10(6.3)	22(13.9)	43(27.2)	78(49.4)	158(100.0)

라. 논술위주전형 등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

1) 대학별 논술위주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함

‘현행 대학별 논술위주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53.8%가 반대하였으며, 25.3%가 찬성하였다. 특히, 1학년 재학생의 경우(60.8%), 그 외 구의 경우(57.8%),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58.3%), 높은 비율로 해당 의견에 반대하였다.

〈표 83〉 대학별 논술위주전형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32(43.2)	13(17.6)	16(21.6)	10(13.5)	3(4.1)	74(100.0)
	2학년	12(27.9)	10(23.3)	7(16.3)	9(20.9)	5(11.6)	43(100.0)
	3학년	13(31.7)	5(12.2)	10(24.4)	11(26.8)	2(4.9)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1(37.5)	5(8.9)	14(25.0)	13(23.2)	3(5.4)	56(100.0)
	그 외	36(35.3)	23(22.5)	19(18.6)	17(16.7)	7(6.9)	102(100.0)
경제 수준	상	11(39.3)	1(3.6)	6(21.4)	8(28.6)	2(7.1)	28(100.0)
	중	38(35.8)	21(19.8)	23(21.7)	17(16.0)	7(6.6)	106(100.0)
	하	8(33.3)	6(25.0)	4(16.7)	5(20.8)	1(4.2)	24(100.0)
전체		57(36.1)	28(17.7)	33(20.9)	30(19.0)	10(6.3)	158(100.0)

2) 현행 대학별 논술보다는 논술 반영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해야 함

‘현행 대학별논술보다는 논술을 반영하려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52.6%가 찬성하였으며, 31.1%가 반대하였다. 특히, 3학년 재학생의 경우(63.4%), 그 외 구의 경우(57.8%),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70.8%), 높은 비율로 공동논술 도입 방안에 대해 찬성하였다.

〈표 84〉 공동논술 도입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13(17.6)	12(16.2)	14(18.9)	23(31.1)	12(16.2)	74(100.0)
	2학년	4(9.3)	10(23.3)	7(16.3)	12(27.9)	10(23.3)	43(100.0)
	3학년	3(7.3)	7(17.1)	5(12.2)	13(31.7)	13(31.7)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9(16.1)	11(19.6)	12(21.4)	13(23.2)	11(19.6)	56(100.0)
	그 외	11(10.8)	18(17.6)	14(13.7)	35(34.3)	24(23.5)	102(100.0)
경제 수준	상	5(17.9)	4(14.3)	5(17.9)	8(28.6)	6(21.4)	28(100.0)
	중	13(12.3)	21(19.8)	20(18.9)	34(32.1)	18(17.0)	106(100.0)
	하	2(8.3)	4(16.7)	1(4.2)	6(25.0)	11(45.8)	24(100.0)
전체		20(12.7)	29(18.4)	26(16.5)	48(30.4)	35(22.2)	158(100.0)

3) 개별 대학의 선발권 확대를 위해 대학별로 본고사 도입을 허용해야 함

‘개별 대학의 선발권 확대를 위하여 대학별로 본고사를 도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58.2%가 반대하였으며, 17.7%가 찬성하였다. 특히, 2학년 재학생의 경우(60.5%), 그 외 구의 경우(59.8%),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경우(67.9%), 높은 비율로 대학별 본고사 도입 허용 방안에 대해 반대하였다.

〈표 85〉 대학별 본고사 도입 허용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녀 학년	1학년	26(35.1)	17(23.0)	22(29.7)	5(6.8)	4(5.4)	74(100.0)
	2학년	15(34.9)	11(25.6)	11(25.6)	2(4.7)	4(9.3)	43(100.0)
	3학년	18(43.9)	5(12.2)	5(12.2)	8(19.5)	5(12.2)	41(100.0)
거주 지	강남 3구	23(41.1)	8(14.3)	15(26.8)	6(10.7)	4(7.1)	56(100.0)
	그 외	36(35.3)	25(24.5)	23(22.5)	9(8.8)	9(8.8)	102(100.0)
경제 수준	상	14(50.0)	5(17.9)	6(21.4)	3(10.7)	0(0.0)	28(100.0)
	중	39(36.8)	22(20.8)	28(26.4)	10(9.4)	7(6.6)	106(100.0)
	하	6(25.0)	6(25.0)	4(16.7)	2(8.3)	6(25.0)	24(100.0)
전체		59(37.3)	33(20.9)	38(24.1)	15(9.5)	13(8.2)	158(100.0)

V. 조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의 시사점

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인식 조사결과의 시사점

1)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의 시사점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만족한다는 답변이 극히 적고, 응답자의 대부분(79.1%, 약간 불만족 23.4%, 매우 불만족 55.7%)이 불만족으로 답변한 것을 고려할 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용이 주권자인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공론에 근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일명 '수시 납치'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수(58.3%)가 매우 불만(38%), 또는 약간 불만(20.3%)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현행 대입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의 시사점

현행 대입제도의 효과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입제도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 효과, 사교육비 증가 또는 경감 유발 효과, 선발 공정성(학생의 노력과 성취에 따른 선발 효과), 형평성(선발 불평등 개선, 사회약자 배려 효과), 투명성(선발기준 공개 정보, 합격·불합격 이유 확인 가능성), 복잡성과 간소화 정도 문항에서 모든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부정적인 답변(불만족 답변)이 높은 문항의 순서를 살펴보면, 현행 대입제도의 복잡성과 간소화 정도(91.8%) > 대입제도의 사교육비 증가 또는 경감 유발 효과(87.4%) > 대입제도의 선발 공정성(학생의 노력과 성취에 따른 선발 효과)(82.3%) > 대입제도의 투명성(선발기준 공개 정보, 합격·불합격 이유 확인 가능성)(78.5%) > 대입제도의 형평성(선발 불평등 개선, 사회약자 배려 효과)(68.9%) > 공교육 정상화 기여 효과(67.7%) 순이었다. 현행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함과 아울러 이러한 정책문제(부적용)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나. 현행 대입제도의 전형유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은 여러 대입전형 유형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내신과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88.6%가 부정)’,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80.4%가 부정)’,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84.8%가 부정)’이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이 ‘내신과 수능 사교육비 경감’, ‘고교교육 정상화’, ‘공정한 선발’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생부종합전형이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71.5%가 긍정)’,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92.4%가 긍정)’, ‘전형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층별로 대학별 전형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89.9%가 긍정)’,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다(88%가 긍정)’,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73.4%가 긍정)’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문항인,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부모 응답자의 4분의 3 정도가 긍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 현장의 문화까지 부정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조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심각한 문제,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능전형보다 사교육비 경감에 더 기여한다(82.3%가 부정)’,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75.3%가 부정)’,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67.1%가 부정)’는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이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32.9%, 부정적인 응답이 67.1%로 분포하여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그나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조금 높았다. 서울시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만이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생부교과전형이 ‘학교별 내신사교육, 전 학년 사교육, 지식위주 사교육 등 내신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88%가 긍정)’, ‘내신 사교육을 많이 하는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77.2%가 긍정)’,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68.9%가 긍정)’,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따라 몰아주기 등을 조장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전형이다(77.2%가 긍정)’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긍정하는 응답을 하였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이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9%가 긍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시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만이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부정의 정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수능위주전형이 ‘EBS를 활용할 수 있기에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60.8%가 긍정)’, ‘학업성취 향상을 중시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와 책무성 신장에 기여한다(63.3%가 긍정)’, ‘학생의 노력과 능력 및 객관적인 학업성취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82.3%가 긍정)’는 문항에 대해 과반수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수능위주전형이 ‘학생의 노력과 능력 및 객관적인 학업성취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를 초과하는 응답자가 긍정하였고, 부정하는 응답자는 약 17.7%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수능위주전형이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전형이다.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73.4%가 부정)’,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86.1%가 부정)’,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89.9%가 부정)’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할 때,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현행 대입제도가 정시 수

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너무 지나치게 줄인 점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수능위주전형이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전형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긍정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학부모들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요구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대입제도의 수시, 정시 비율 및 주요 전형의 비율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의 시사점

우선, 대입제도의 수시, 정시 비율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72.8%가 정시 수능전형을 좀 더 확대(15.8%) 또는 크게 확대(57%)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시 학생부전형을 확대하자는 요구는 16.5%에 불과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서울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정시 수능전형의 대폭 확대임을 알 수 있다.

전형유형별로 축소 또는 확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축소하자는 요구가 아주 많은 전형은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모두 참여자의 72.2%가 축소를 요구하였다. 논술위주전형도 확대 요구보다 축소 요구가 조금 더 많았다. 이러한 수시 전형유형들의 축소 요구는 아마도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불공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수능위주전형에 대해서는 74.1%가 조금 확대 또는 대폭 확대를 요구하였다.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은 79.1%였고,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은 82.3%였다. 특이한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보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의견이 3.2% 높았다는 사실이다.

2) 각 대입전형의 개념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의 시사점

본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각 대입전형의 개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을 현행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49.4%로 나타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2%로 나타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15.8%로 나타났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22.8%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한다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학생부

교과전형의 개념을 현행과 달리,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향후 대입제도 개편 시 학생부교과전형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논술위주전형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과반수(54.4%)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능위주전형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과 매우 다른 요구가 확인되었다. 수능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하자는 의견이 16.5%, 수능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하자는 의견이 15.8%,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하자는 의견이 46.2%로 나타나고 있다. 수능위주전형의 개념을 현행대로 ‘수능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두자는 의견은 21.5%에 불과하였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62%가 수능위주전형의 개념을 ‘수능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수능위주전형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능위주전형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편법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의 시사점

먼저, ‘대입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등 공통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과 ‘대입전형은 국영수 위주보다는 전공진로(모집단위)에 따라 반영과목을 달리 하여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문항은 서로 대립적인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의견을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양자 중 선택 방식 등 다른 방식의 문항을 통한 요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교사의 평가기록, 수능 성적, 면접 점수를 종합하여 주관적 정성평가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무려 72.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반대 비율이 무려 50.6%에 이르고 있어 대입전형 전체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7월에 수능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시용 수능을 1회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위주전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부정 42.4%, 긍정 45.6%를 나타내고 있어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미미하게 2회 시행 요구가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수시 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부정 46.9%, 긍정 45%를 나타내

고 있어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대학이 각 전형유형의 전형결과를 지역별, 고교유형별, 소득분위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하고 있기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빠른 입법화 작업이 요구된다.

4)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의 시사점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은 축소 또는 폐지 요구가 과반수 이상 나타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으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축소 또는 폐지 요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점수와 평가결과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9%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더욱 확대에 대해서도 64.6%가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학생부의 대신교과성적 산정 방법은 현행 일부 상대평가등급제, 일부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 병행 방식에서,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32.3%)보다 긍정적인 응답(46.2%)이 좀 더 많았다. 현 정부가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로 변경하는 정책에 대한 소극적 지지가 예상된다.

이 설문조사에서 처음 제기된 문항인, ‘고3 7월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의 해당 교과점수를 대체(경신)하도록 허용하여 수시 학생부전형에서도 변경된 점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3.2%(그렇다 24.1%, 매우 그렇다 29.1%)에 이르렀다. 7월 수능이 학생에게 주어지는 이익 또는 혜택(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의 해당 교과점수를 대체, 경신 허용)이 제시될 경우에 7월 수능 추가 시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7월 수능에 응시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을 대학의 모집요강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개된 전형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무려 80.4%가 긍정하고 있어 신속한 법제화 작업이 요청된다. 부정적인 응답은 6.3%에 불과하였다. 새 정부가 추진할 경우 매우 큰 지지가 예상된다.

5)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의 시사점

수능,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은 3학년 1학기 말(7월)과 2학기 말(11월)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응시에 대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9.4%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인 32.3%보다 17.1% 높았다. 7월 수능은 수시용, 11월 수능은 정시용으로 분리하여 활용하면 난이도 문제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에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현행 비율보다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4.1%에 달하고 있어,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셋째, ‘국가수준공통시험인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여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0.9%에 달하고 있어, 법제화 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수능 시험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59.5%로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수능 시험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될 경우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능시험의 변별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부정 및 반대 의사(70.9%)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같은 맥락으로 ‘수능 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무력화하려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부정 및 반대 의사(76.6%)도 확인된다. 수능시험의 변별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려는 정책방안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수능 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국, 영, 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제한해야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48.1%)도 확인된다. 찬성 의사 비율은 34.2%로 나타났다.

여덟째,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을 지금보다 일부 확대하고 대학 모집계열별로 반영과목을 차별화(특성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대한 소극적인 긍정(찬성 46.9%, 반대 34.2%)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아홉째, ‘학생들에게 더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하여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76.6%로 나타났다. 대입제도 개편 시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기타 조사결과의 시사점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논술전형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53.8%)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술전형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논술전형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행 대학별논술보다는 논술을 반영하려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52.6%)이 더 많았다. 이 경우 출제는 공동으로 하고 답안에 대한 평가와 합격 여부 결정은 각각의 대학에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 경우 출제 경향이 각각 다르지 않기에 고등학교에서 대학논술전형에 대한 대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대학의 선발권 확대를 위하여 대학별로 본고사를 도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반대의견 비율이 58.2%)이 확인된다.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대학별로 본고사를 도입될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본고사 대비가 어려울 것이기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 정책 제언

가. 대입정책 개선 과정에 대한 제언

첫째, 대입제도 개편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반드시 대입정책 개선 정책과정은 교육부장관이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독단적인 처리는 옳지 않으며, 반드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권자인 학부모, 국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대입정책 개선 정책과정이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에 반영된 정시수능전형 확대라는 국민 다수의 요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입정책 개선 정책과정에서 공약과 반대 의사를 가진 교육부장관이나 특정인이 정책과정에 개입하거나 정책과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나. 대입정책 개선 내용에 대한 제언

대입제도에 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대입제도 개선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은 대입제도 정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목표는 4개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학생의 노력과 학업성취에 근거한 공정 대입제도’,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공평 대입제도’, ‘단순 대입제도’, ‘적격자 선발을 위한 타당한 대입제도’이다.

1) 공정대입제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금수저전형, 불공정전형, 감감이전형 등으로 비판 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행보다 수능중심전형을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수준공통시험인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여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같은 맥락에서 '수능 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무력화하려는 정책'과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능시험의 변별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은 결코 추진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고3 시기 수시전형용 7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신규 도입하여, 1년에 2번의 수능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번을 시행하더라도 수시와 정시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칸막이를 하면 난이도 차이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고3 7월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의 해당 교과점수를 대체(경신)하도록 허용하여 수시 학생부전형에서도 변경된 점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7월 수능에 응시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시에서도 '학생들에게 더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하여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수시 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 결과 찬반이 팽팽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치박탈 정도가 크기에 시급히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교사의 평가기록, 수능 성적, 면접 점수를 종합하여 주관적 정성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은 응답한 대부분의 학부모(72.7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기에 결코 추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만약 이를 추진할 경우 대입전형이 전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질되어 각종 부작용과 반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공평대입제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지역균형과 사회약자를 적극적으로 선발

첫째, 학생부교과전형은 서울시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선발 효과가 있기에 유지하되, 현행 수준보다는 일부 축소하여 시행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둘째, 학생부교과전형은 반드시 학생부 교과 내신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일부 대학처럼 학생부교과전형에 주관적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왜곡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반드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지역균형선발과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최근 일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점수와 평가결과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88%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경우 고교 서열화, 불공정과 불평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기에 결코 추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3) 단순대입제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전형요소 단순화

첫째, 하나의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대입전형요소를 최소화하여 대입전형을 실질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전型的 개념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전형요소의 반영 비율을 90% 이상 반영하도록 개념부터 새로이 규정하면 대입전형이 실질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술전형이 각 대학마다 출제경향이 달라서 큰 혼란을 초래하고 고교에서의 준비를 어렵게 하기에, 논술전형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행 대학별논술보다는 논술을 반영하려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출제는 공동으로 하고 답안에 대한 평가와 합격 여부 결정은 각각의 대학에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 경우 출제 경향이 각각 다르지 않기에 고등학교에서 대학논술전형에 대한 대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타당한(적격자선발)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을 지금보다 일부 확대하고 대학 모집계열별로 반영과목을 차별화(특성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수능위주전형만이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까지 모두 모집단위별로 선택과목을 차별화하는 진로맞춤형 대입전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수능 평가문항을 고급사고력과 핵심역량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야 한다. 다만, 수능시험에 논·서술형평가를 도입하나 대입본고사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크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설문조사는 제한된 연구비로 인하여 설문조사 표본 수가 적고, 또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에 한정된 설문조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조

사연구 비용을 책정하여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 및 전체 국민들의 대입제도 만족도 및 요구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국회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대입제도 개편 정책의 충분한 공론화 이후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좀 더 갖춘 설문조사를 통해 공론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권재민)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정책 결정권한이 국민에게 있으며, 그 국민 대부분이 현재 학부모,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집단과,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함께 조사·연구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연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 연구용역으로,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의 요구를 확인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정책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주요 교육정책인 대입제도에 대한 학부모·시민 평가와 민의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한된 연구비와 제한된 설문 참여자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전면적인 적용은 신중해야 하겠지만, 이 조사 결과를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공론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보고, 이후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과정과 조사과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교육부, 2018.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2019.
- 교육부,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22a.
- 교육부, 대입정책자문회의 첫 회의 개최 -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일정 등 논의 -, 교육부, 2022b.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a.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b.

■ 연구논문

- 박봉서, 대학입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 안선희, 5.31 교육개혁이 학교교육 혁신에 미친 영향. 5.31 교육개혁 20주년 세미나①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행정학회, 111-169, 2015.
- 안선희,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추진과정과 정책문제 분석, 교육문화연구, 24(6), 87-116, 2018.
- 안선희, 대입제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연계성 분석: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1), 57-92, 2018b.
안선희, 대입제도 관련 교원과 학부모 간 정책갈등 분석, 학부모연구, 8(1), 27-56, 2020.
안선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입제도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7(1), 243-280, 2021.

■ 보도자료

주간조선, 2025 고교학점제에 수능 운명이 달렸다(<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94>), 2022.11.18.
중앙일보, 이주호 “文정부 정시확대, 참담하다…일반고 살리기 집중할 것”(<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053>), 2022.11.28.

ID					
----	--	--	--	--	--



대입제도 관련 서울시 학부모 만족도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연구프로젝트 연구진입니다.

저희는 대입제도에 관한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조사 결과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안선희 교수(책임연구원, goright21@naver.com), 윤소정 연구원(ysj6874@naver.com)

배경질문

배문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몇 학년 학생입니까?

- ① 1학년 재학 ② 2학년 재학 ③ 3학년 재학

배문2.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거주지 구)

-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배문3. 귀댁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 ③ 하

※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입전형의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다음은 현행 대입제도의 주요 특징입니다.

-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분리(추가모집 가능),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 불가
-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정원 내 전형 기준). 구체적으로는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 * OO위주 전형은 전형요소인 OO이 50% 이상 반영되는 전형을 의미
-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 결정(다만, 서울 소재 16개 대학만 정시수능전형 40% 이상 선발)
-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비율은 79%, 정시비율은 21.0%(수능전형은 19.3%) 차지
-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은 1년 중 11월에 1번만 시행

문1. 다음은 전형 유형 구분 없이 전반적인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문1-1.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이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 현행 대입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문1-2. 현행 대입제도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대한 효과는 어떠합니까?

공교육 정상화를 크게 저해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약간 저해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영향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 약간 기여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현행 대입제도의 사교육비 증가 또는 경감 유발 효과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에 약간 영향을 준다.	사교육비 증감에 영향이 없다.	사교육비 경감에 약간 기여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현행 대입제도의 선발 공정성(학생의 노력과 성취에 따른 선발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약간 저해한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약간 기여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현행 대입제도의 형평성(선발 불평등 개선, 사회약자 배려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선발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학생 선발의 형평성을 약간 저해한다.	학생 선발의 형평성에 영향이 없다.	학생 선발의 형평성에 약간 기여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형평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현행 대입제도의 투명성(선발기준 공개 정보, 합격·불합격 이유 확인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한다.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약간 저해한다.	학생 선발의 투명성에 영향이 없다.	학생 선발의 투명성에 약간 기여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투명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현행 대입제도 전반의 복잡성과 간소화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복잡하기에 매우 불만족	대체로 복잡하기에 약간 불만족	적절한 수준	대체로 간소하기에 약간 만족	매우 간소하기에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1-8. 현행 대입제도에서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기에 매우 불만족	학생의 선택권을 약간 제한하기에 약간 불만족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음	대학 선발절차에 조금 도움을 주기에 약간 만족	대학 선발절차에 크게 도움을 주기에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2. 현행 대입제도의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주장과 불공정전형, 금수저전형, 감감이전형이라는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과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2)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3)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4)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은 이 질문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①	②	③	④
5)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6)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층별로 대학별 전형정보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8)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	①	②	③	④

문3. **현행 대입제도의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주장과 내신성적경쟁과 내신사교육을 증가시킨다는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전형보다 사교육비 경감에 더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2)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3)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4)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별 내신사교육, 전 학년 사교육, 지식위주 사교육 등 내신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	①	②	③	④
5) 학생부교과전형(일반전형)은 내신 사교육을 많이 하는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①	②	③	④
6)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평가와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권한을 증가시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더 순종하는 문화를 조장한다.	①	②	③	④
7)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따라 몰아주기 등을 조장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문4 **현행 대입제도의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수능위주전형이 선발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능위주전형은 EBS를 활용할 수 있기에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2) 수능위주전형은 학업성취 향상을 중시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와 책무성 신장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3) 수능위주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 및 객관적인 학업성취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4) 수능위주전형은 고교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5) 수능위주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6)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①	②	③	④
7) 수능위주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8) 수능위주전형은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최근 4년 간 대입전형 유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비율 현황입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4학년도(A)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2021학년도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121	44.8%	154,464	44.2%	148,506	42.9%	146,924	42.3%
	학생부위주(종합)	79,358	23.0%	81,390	23.3%	79,503	22.9%	86,083	24.8%
	논술위주	11,214	3.3%	11,016	3.2%	11,069	3.2%	11,162	3.2%
	실기/실적위주	22,539	6.5%	21,014	6.0%	18,817	5.4%	18,821	5.4%
	기타	4,800	1.4%	4,558	1.3%	4,483	1.3%	4,384	1.3%
소계		272,032	79.0%	272,442	78.0%	262,378	75.7%	267,374	77.0%
정시	수능위주	66,300	19.3%	69,911	20.0%	75,978	21.9%	70,771	20.4%
	실기/실적위주	5,515	1.6%	6,150	1.8%	7,470	2.2%	8,356	2.4%
	학생부위주(교과)	228	0.1%	252	0.1%	201	0.1%	270	0.1%
	학생부위주(종합)	162	0.0%	313	0.1%	347	0.1%	424	0.1%
	기타	59	0.0%	56	0.0%	179	0.1%	252	0.0%
소계		72,264	21.0%	76,682	22.0%	84,175	24.3%	80,073	23.0%
합계		344,296	100.0%	349,124	100.0%	346,553	100.0%	347,447	100.0%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각 연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참조

문5. 대입제도 전형 유형의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현재 고3 해당)에서 수시비율은 78%, 정시비율은 22.0%(수능전형은 20.0%) 차지하고, 2024학년도 대입(현재 고2 해당)에서 수시비율은 79%, 정시비율은 21.0%(수능전형은 19.3%)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유형의 비율을 표에서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문5-1. 수시와 정시 전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수시 학생부전형을 매우 크게 확대해야 한다.	수시 학생부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비율 그대로가 좋다.	정시 수능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정시 수능전형을 매우 크게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2. 각각의 전형유형 비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유형의 하나로서,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질문 내용	대폭 확대	조금 확대	현행 유지	조금 축소	대폭 축소
1)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2023학년도 23.4%)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2023학년도 44.3%)	①	②	③	④	⑤
3) 논술위주전형의 비율(*2023학년도 3.2%)	①	②	③	④	⑤
4) 실기/실적위주전형의 비율(*2023학년도 7.8%)	①	②	③	④	⑤
5) 수능위주전형의 비율(*2023학년도 20.0%)	①	②	③	④	⑤

문5-3.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필요	불필요	대학 자율
1)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①	②	③
2)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자격기준 적용	①	②	③

문6. 대입제도 전형유형의 개념 규정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에 학생부 기록의 주관적 정성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거나, 정시 수능전형에도 학생부 교과성적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주관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OO위주 전형은 전형요소인 OO이 50% 이상 반영되는 전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문6-1.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학생부교과전형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행 학생부교과전형 개념 규정: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현재 개념 규정 그대로가 좋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30% 이내에서 학생부 세특과 종합의견 기록, 면접 등을 주관적 정성평가하여 반영 가능)	학생부 교과 성적을 9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10% 이내에서 면접 점수를 반영 가능)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주관적 정성평가, 면접 점수 반영 배제)
①	②	③	④

문6-2. 수능위주전형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수능위주전형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행 수능위주전형 개념 규정: '수능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현재 개념 규정 그대로가 좋다. (수능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수능 성적을 7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30% 이내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세특과 종합의견 기록, 면접 등을 주관적 정성평가하여 반영 가능)	수능 성적을 9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10% 이내에서 면접 점수를 반영 가능)	수능 성적을 100%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주관적 정성평가, 면접 점수 반영 배제)
①	②	③	④

문6-3. 논술위주전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현행 논술위주전형 개념 규정: '논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현재 개념 규정 그대로가 좋다. (논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논술 성적을 7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30% 이내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세특과 종합의견 기록, 면접 등을 주관적 정성평가하여 반영 가능)	논술 성적을 90% 이상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10% 이내에서 면접 점수를 반영 가능)	논술 성적을 100%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 교과성적과 기록 면접 점수 반영 배제)
①	②	③	④

문7. 대입제도 개편 방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대입제도 개편 주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반	1) 대입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등 공통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입전형은 국영수 위주보다는 전공진로(모집단위)에 따라 반영과목을 달리 하여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교사의 평가기록, 수능 성적, 면접 점수를 종합하여 주관적 정성평가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7월에 수능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용 수능을 1회 더 시행하여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위주전형을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수시 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모든 대학이 각 전형유형의 전형결과를 지역별, 고교유형별, 소득분위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 생 부	7) 학생의 교과성적, 비교과, 교사의 평가기록,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의 교과성적, 비교과, 교사의 평가기록,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국제 바칼로레아(IB) 점수와 평가결과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바칼로레아(IB)란 스위스 비영리기관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중심의 학습과 탐구를 논술 및 서술로 평가함)	①	②	③	④	⑤
	10) 모든 학교의 내신등급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역균형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부의 내신교과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부의 내신교과성적 산정 방법은 현행 일부 상대평가등급제, 일부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 병행 방식에서, 모든 교과목 절대평가등급제(성취평가등급제)로 변경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고3 7월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교과별 수능 점수로 내신의 해당 교과점수를 대체(경신)하도록 허용하여 수시 학생부전형에서도 변경된 점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능 교과와 내신 교과 연계 방법을 사전에 고시 필요)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전형기준을 대학의 모집요강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개된 전형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 능	14) 수능은 3학년 1학기 말(7월)과 2학기 말(11월)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7월 수능은 수시용, 11월 수능은 정시용으로 분리하여 활용하면 난이도 문제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 가능)	①	②	③	④	⑤
	15) 객관적인 학업성취(수능 점수)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수능전	①	②	③	④	⑤

	형을 현행 비율(2023학년도 20.0%, 2024학년도 19.3%)보다 확대해야 한다.					
	16) 핀란드와 같이, 국가수준공통시험인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여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능전형으로 50% 선발 법제화)	①	②	③	④	⑤
	17) 수능 시험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능 점수 산출방식을 모두 절대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능 시험의 변별력과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능 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어 대학 진학 자격 여부만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시험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사실상 없애고, 대학은 수시 학생부전형을 위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수능 응시과목을 공통필수과목(국, 영, 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능 시험 교과목에서 아예 선택과목을 배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을 지금보다 일부 확대하고 대학 모집계열별로 반영 과목을 차별화(특성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수능전형으로도 진로맞춤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현재 수시는 6개교(6회)를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 1회씩 3회만 지원하도록 제한하여 눈치작전이 심하고, 운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하여 정시 지원기회를 수시와 같이 군별 2회씩 총 6회로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논 술 형	23) 현행 대학별 논술위주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논술위주전형은 2023학년도 3.2%, 2024학년도 3.3%) (*해당 전형은 고급사고력 향상이라는 장점과 공정한 평가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공존한다는 평가가 존재함)	①	②	③	④	⑤
	24) 현행 대학별논술보다는 논술을 반영하려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개별 대학의 선발권 확대를 위하여 대학별로 본고사를 도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판권지)

서울시 학부모의 대입제도 만족도와 요구조사

제 안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혁신포럼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담 당 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기획담당관 김동규 지원관

연구기관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안 선 회

연 락 처 : 031-8075-1683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91-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